



다함께그린 친환경

발행처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02-775-9122
www.childfund.or.kr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0
발행일 2020. 11. 05
발행인 이제훈(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제작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기획 RS기획
디자인 RS기획
인쇄 (주)가나씨앤피
ISBN 978-89-85648-74-5

-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원고 내용은 본상 수상작 234편 중 35편을 선정하여 게재하였습니다.

- 각 원고는 원작자(아동)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교정만 진행하였으며, 편지 제목은 원문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수상자의 인적사항(학교, 이름)은 2020년 7월 공모 접수 당시 기준으로
기재되었으며, 일부 아동은 가명 처리 하였습니다.

- 이 책의 저작권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있습니다.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사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목차

발간사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8
심사평 제5회 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심사평 고도원	10
사다리가 되어준 할머니	14
수현아 항상 고마웠고 사랑해	22
따뜻했던 선생님의 손	26
왕이모는 남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가족이에요	30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34
손녀가 할머니 사랑했다는거 잊지마	38
아빠는 내 영원한 아빠	42
나를 꺼내준 선생님	46
천사로부터 온 편지 한 통	52
첫 곱 씨 제자	56
‘고마워’ 이 세 글자	64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	70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76
엄마의 메리야스	80
나의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	84

목차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게요	92
선생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	98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102
여름이라 더운 겨울이라 춥다는 것을	108
이젠 제가 외할아버지의 든든한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110
엄마는 나의 첫 번째 자랑거리	116
나의 유일한 가족, 엄마	120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124
아버지의 생각과 헌신	128
제가 아빠의 시간에 맞출게요	132
나의 7년지기 친구	138
선의를 베푸는 따뜻한 사람	142
나는 매일 11시부터 행복을 느껴	144
엄마는 나의 영웅이자 슈퍼히어로	148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152
김주원의 어머니, 선희씨	160
소나무 그늘	164
든든한 지원자, 아빠	168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174
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178

발 간 사

들국화가 겨울 옷매무새를 준비하느라 금빛 단추를 여미는 이 계절, 제 5회 전국감사편지쓰기 공모전 수기집을 발간하게 되어 기쁩니다.

올 한해는 연초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번지며 우리 모두를 만남과 소통 대신 고립과 차단이라는 삶의 방식을 강요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은 등교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생활하며 정다운 친구들 그리고 고마우신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겪었습니다.

선생님들 또한 새로운 교육 방법을 찾는 일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방역과 안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고된 상황의 한 해였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왁자지껄하던 교실, 친구들과 서로 마주 보며 나누던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실감했을 것입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은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고마운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나누도록 함으로써 바르고 아름다운 인성을 키우고 존중과 배려를 통해 세대 간 소통이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습니다.

올해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에는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로부터 151,753통의 편지가 접수되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하고 진솔한 마음이

담긴 편지를 심사위원들이 정성껏 심사한 결과, 234명이 본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감동적이었던 35통의 편지를 선정해 수기집으로 엮게 된 것입니다.

“편지는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그리운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는 말이 있듯이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위로와 사랑의 교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교육부와 전국의 교육청, 그리고 EBS · 문화일보와 함께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편지 공모전이 우리 아이들의 인성함양은 물론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와 우리 사회에 배려와 존중 그리고 사랑의 물결운동으로 크게 확산되기를 기원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회장 **이제훈**

심사평

올해도 가을이 왔지만 작년과 너무나 다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를 몰랐던 작년 가을과 올 가을은 전혀 다릅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시시각각 격동의 변화 속에 살아가는 요즘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잘 견디고 더 잘 보내면 선물 같은 내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의 믿음을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매일 만나는 가족,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의 눈으로 보면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편지 속에 지금은 만날 수 없거나 병과 싸우고 있는, 또 선천적 아픔을 가진 가족을 바라봐야만 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우리가 진정 가져야 할 마음은 당연한 것처럼 느끼는 모든 일상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올해 감사편지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최전방에서 애쓰시는 의료진들, 간호사들, 경비원분들과 같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과도 같은 분들께 보내는 편지도 있어 더욱 반갑고 기뻐했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은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나의 마음에 말을 거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침편지를 통해 매일매일 편지를 쓰며 저의 정신세계도 성숙해졌음을 고백하는 저의 오랜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을 올해 5회째 이어가고 있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님을 비롯해 함께 심사에 참여하신 심사위원분들, 여러 스태프분들께 진정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야 하는 하는 존재임을 느끼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심사위원장을 맡으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으로 아침편지도 더욱 열심히 쓰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편지 문화재단 이사장 **고도원**

선생님의 칭찬에
시들어 버릴 뻔했던
저의 떡잎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 했어요



사다리가 되어준
할머니

대구 대구보건학교 3학년 박준서

수현아 항상 고마웠고
사랑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담고등학교 1학년 김청명

따뜻했던
선생님의 손

부산 우암초등학교 4학년 강현욱

왕이모는 남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가족이에요.

대전 내동초등학교 4학년 이지민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경기 행신초등학교 5학년 김보현

사다리가 되어준 할머니

To. 사랑하는 할머니께

할머니 안녕? 할머니의 하나뿐인 손자 준서야. 할머니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바쁜 엄마를 대신해서 나를 보살펴왔잖아. 내가 말을 안 들어서 할머니 속도 많이 썩이고 할머니를 많이 울게 했지. 지금 생각하면 내가 할머니를 참 많이 힘들게 했어. 그럼에도 철없던 나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준 건 할머니였어. 초등학교 1학년 때 ADHD 병 때문에 심리 치료도 받고 미술 치료도 받아야 해서 병원에 다녔는데 내가 안 아팠더라면 할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 지금은 치료도 열심히 받고 할머니의 많은 도움 덕분에 완치했지만 까치발로 걸으면서 할머니랑 같이 손잡고 다니던 그때가 생각나. 그때는 걷는 게 힘들어서 까치발로 걸었지만 할머니 손잡고 걸을 수 있었던 때가 가끔 그리워. 내가 초등학교 때 걷다가 넘어지고 일어설 때도 힘들게 일어나는 모습을 엄마랑 할머니가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 나를 데리고 가서 검사를 했잖아. 2일 동안 입원했을 때 할머니가 옆에서 같이 있어 줬는데 그때 나는 병원에 입원한 건

지도 모르고 해맑게 지냈어. 할머니가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얼마나 속을 끓였을까... 그날 병원에서 ‘근이영양증’이라는 근육병을 판정받았지. 그리고 물리치료 받으러 병원에 다닐 때 할머니는 항상 내가 느리게 걸어도 기다려주고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 잡아주고, 넘어졌을 때는 나를 토닥여주었어. 학교에서 친구들이 내 다리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터 내가 서있으면 친구가 나를 밀치고 내가 지나가면 발을 걸어서 넘어지게 했었어. 할머니가 학교에서 내가 정수기에 물 가지러 가는 길이 힘들까봐 챙겨줬던 물도 애들이 다 뺏아서 마시고 겨울에 내가 가지고 다니던 핫팩도 가져가서 던지고 터트리고 해서 내가 할머니한테 핫팩을 2개씩 가져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할머니가 왜 2개 가져가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냥 “양손이 시려워서.” 말했었지만 사실은 할머니한테 나는 한없이 소중한 손자인데 내가 친구들이랑 잘 지내지 못하는 모습을 할머니가 알게 되면 할머니의 마음이 많이 아플까봐 말할 수가 없었어. 학교생활이 힘들어도 내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하면서 스스로 “괜찮아. 괜

잖아.”라고 다독이면서 버텼어. 근데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것은 할머니가 항상 나한테 힘이 되는 말들을 해주고 괜찮다며 다독여주었기 때문이었어. 그래도 나를 되게 잘 챙겨주는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왔을 때 할머니가 “태진아, 우리 준서 잘 챙겨줘서 고마워”라고 얘기하며 눈물을 보였을 때 내 마음이 되게 몽클했어. 할머니는 항상 내가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에게 항상 고맙다며 준서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잖아. 그 고맙다는 말을 직접 들었을 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했던 것 같아. 중학교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에 살아서 할머니는 나를 업고 5층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3년 내내 등학교를 시켜주었어. 그러다가 무릎이 아픈 할머니는 매일 매일 업고 올라가다가 무게 중심을 잘 못 잡아서 나와 할머니가 넘어진 적 있었잖아. 할머니는 넘어진 그 순간에도 내가 다치진 않았을까 내 몸부터 살펴보았어. 그때 등에 업혀있던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 없이 할머니에게 미안하고 죄송스러웠어. 다섯 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는 계단조차도 나에게서는 오를 수

없는 높은 산과 같은데 할머니는 무릎이 다 닳도록 나의 사다리가 되어주었어.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할머니는 나를 중학교 졸업을 시켜주었어. 할머니 무릎 수술하던 날 할머니는 나에게 걱정하지 말고 있다고 할머니는 괜찮다며 나를 안심시켜 주었지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이 날려고 해.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 특수학교랑 일반학교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 나는 일반학교를 가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말을 따르고 특수학교에 가게 되었는데 학교 갈 날이 다가오자 적응을 못 할까봐 걱정했지만 막상 학교생활 해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주고 말도 많이 걸어준 덕분에 걱정과 다르게 좋은 친구들이 많았어. 오히려 나보다 더 몸이 불편한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게 웃고 씩씩한 모습을 보면서 “왜 나만 힘들게 살아야하지?” 하며 항상 스스로를 자책하고 좌절하던 날들을 반성하기도 했어. 항상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만 받아왔었는데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 감사함을 느꼈어. 그날 집에 가서 오늘 학교에서 정말

재미있었고 친구들도 착하고 선생님들도 친절하다며 할머니에게 얘기해 줄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집에 가는 길이었어. 학교 버스 문이 열리고 내가 리프트를 타고 내려오면서 할머니를 보았을 때 그 순간 할머니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어. 내가 집에 가는 길에 “할머니 왜 울어...?” 하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다리만 안 아팠으면 휠체어도 안 타고 리프트 없이 내려올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했어. 그때 그 순간 할머니의 마음을 내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었겠지만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기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세상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할머니가 너무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나에게 별도 달도 따다 줄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우리 할머니인데... 할머니 고운 얼굴에 내가 눈물짓게 해서 미안해. 내가 휠체어를 타게 되고나서 할머니가 내가 아무런 의자에 앉아 있을 때면 아픈 사람 같지도 않다며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던 것 기억나? 그럴 때마다 나는 항상 웃어넘겼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먹먹했어. 할머니가 나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나에게도 전

해진 것만 같았거든. 할머니가 가끔 나를 뺨히 쳐다볼 때 있잖아. 그러면 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왜? 내 얼굴에 뭐가 묻었어?”라고 물으면 할머니는 “예뻐서”라며 미소를 지어 주었지. 할머니 눈 속에는 항상 내가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겠지만 할머니, 나는 이제 학교생활도 즐겁게 잘하고 있고, 친한 친구들도 사귀었고, 전국정보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도 받았고, 3D 프린터 동아리를 하면서 새로운 취미생활도 생겼어. 그리고 작년 부터 전동 휠체어가 생긴 덕분에 이제 할머니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물리치료도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친구랑 영화도 보러가고 몇 달 전 내 생일일 때 엄마에게 꽃다발도 선물해줄 수 있을 만큼 씩씩한 준서가 되었어. 할머니 내가 요즘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는데 할머니는 내가 고민할 때마다 항상 “준서가 하고 싶은 거 해.”라고 말하잖아. 늘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내 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할머니 이제 내가 벌써 성인이 다 되어가. 내가 이만큼 성장했듯이 할머니의 주름도 늘었겠지. 내가 할머니 지켜줄게. 할머니가 나한테 기댈 수 있도록 든든한 사람이 될게.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꼭 오래오래 나랑 함께 해줘야 해. 할머니 항상 건
강하고 나랑 행복하게 살아요. 할머니 항상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해요.

From. 할머니를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랑하는 예쁜 손자 준서 올림

박준서 | 대구 대구보건학교 3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수현아 항상 고마웠고 사랑해.

To. 수현이에게

안녕 수현아? 나 청명이야. 너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너에게 편지 쓰는 것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때 같은 반인 데다가 집도 가까워서 더 급속도로 우리가 친해졌던 거 기억하니? 그때 너랑 같이 학교를 오가며 매우 행복했어. 너는 내가 나에게 얼마나 큰 버팀목이었는데 몰랐을 거야. 네가 나에게 해주는 사소한 말에도 위로를 받았고 사소한 행동도 나에게 큰 도움이 됐어.

어렸을 때의 나는 너도 기억하다시피 지금과 다르게 수줍음이 많고 내성적인 아이였어. 그래서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게 어려웠어. 그때 너가 나에게 먼저 천사처럼 다가와 준 거야. 다른 사람에게 말 거는 것을 어려워하는 나에게 너는 할 수 있다며 항상 응원해줬어. 내가 지금과 같이 활발한 성격이 된 것은 너의 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있어. 이 말을 내가 내 곁에 있을 때 말해주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러지도 못하게 됐네.

너가 처음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 간 날에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는지 넌 상상도 못 할 거야. 남은 수업을 하면서도 정신은

딱 데 가있어서 선생님께 혼나기까지 했어. 그 뒤로 집에 가서 제발 너를 살려달라고 모든 신에게 다 빌었어. 내 마음이 간절해서였을까 너는 곧 건강을 회복했고 병문안을 갈 수 있을 만큼이 된 후에는 걸어서 40분이 걸리는 거리를 거의 매일 걸어서 널 만나러 갔던 것 같아. 그러던 중 너의 병세가 악화되어 항암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너는 그 이후로 모든 병문안을 거부했어.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은데 너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것 같아. 그러던 중 어느 날 집을 가는 길에 너와 너희 어머니께서 산책을 하고 있는 걸 봤어. 기뻐서 달려간 그곳에는 마지막에 봤었던 것보다 더 마르고 머리가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있는 너의 모습이 있었어. 내가 슬퍼하면 너도 슬퍼할까 봐 일부러 웃으면서 너에게 달려가서 한참동안 말을 나눴던 것 같아. 그게 내가 본 너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너를 만난 지 1주일이 지난 어느 날 너희 어머니께서 검정색 옷을 입고 우리 반으로 들어오셨어. 그리고서는 선생님과 몇 마디 나누시더니 우시는 모습을 나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어린 나이였지만 느낌상으로 무언가 안 좋은 일이 너에게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너희 어머니가 나가신 후에야 선생님은 네가 하늘로 올라갔다고 말씀해주셨어.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는데 1층에 온 너의 시신을 담은 검은색 차를 보자마자 실감이 갔어.

수현아 넌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내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큰 기여를 한 친구였어. 비록 너가 나의 곁에 있을 때 감사인사를 하지 못했지만 늦게라도 말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얼른 나아서 초코파이를 먹고 싶다고 얘기한 것을 알게 된 이후로 적은 돈이지만 모아서 너와 같은 친구들을 돕는 단체에 기부도 했고 항암치료로 인하여 머리 빠진 것을 부끄러워하던 너의 모습이 기억나서 4년간 파마, 고데기, 염색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길러서 35cm 정도를 백혈병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곳에도 보냈어. 비록 너는 더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너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줄 때마다 너의 모습이 겹쳐보여서 슬플 때도 많았어. 그래도

나에게 힘을 주던 너를 생각하며 지금까지도 잘살고 있어. 수현아 항상 고마웠고 사랑해. 나중에 너를 다시 보는 날까지 열심히 살아서 꼭 우리 웃으면서 봤으면 좋겠다!

청명이가

따뜻했던 선생님의 손

함께하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손잡아 주신 이필숙 선생님께

이필숙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덕분에 학교로 향하는 발걸음이 즐거워진 현욱이에요.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입학한 저에게 처음 친구들과 생활하는 학교는 말 그대로 우여곡절이었어요. 책 속 친구들과 대화하듯이 학교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면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궁금해 하기보다는 이상한 말, 나쁜 말을 한다고 오해해서 외면당하기 일쑤였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점점 조용하게 지내야 하는 학교는 말수가 줄어드는 만큼 점점 재미없는 곳이 되어갔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저의 말에 귀 기울여주시고,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친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서투른 표현 방법을 친구들과 공감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 덕분에 친구들은 저를 이상한 아이라고 부르지 않고 조선 선비라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쁘게 그리지 못해서 등 뒤에 숨기고만 싶어 하던 그림을 꿈보다 해몽이라 시며 거창한 제목에 박수를 보내주셨죠.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해. 현욱이는 정말 멋진 생각을 말, 글로 표현하는 힘이 있어. 현욱

이의 창의적인 생각들은 세상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어.”

선생님의 칭찬에 시들어 버릴 뻔했던 저의 딱잎은 가뭄에 단비를 만난 듯했어요. 진심으로 해 주시는 말씀 덕분에 다채로운 열매와 꽃을 피우는 뿌리 깊은 나무로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여전히 훌륭한 거목이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어요. 간혹 생각보다 행동이 앞설 때 선생님께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시며 “현욱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실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알고 있어. 선생님은 현욱이가 바른 것을 실천할 줄 아는 어린이라고 믿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께서 잡아주신 손은 혼자만의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으로 나올 수 있게 잡아주신 소중한 손이었어요. 새로운 도전에는 큰 의미가 있는 거라며 영재원에 도전해 보라고 하셨을 때 멀게만 느껴졌지만 도전하면서 배우는 소중한 경험의 가치를 알기에 용기 내 보

았어요. 지금은 같은 궁금증으로 다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영재원에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한 발 더 내딛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나와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두 주먹을 불끈 쥘 때면 선생님과 함께 손잡았던 때가 떠올라요.

생각의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자신감을 주신 선생님. 세상과 가까워질 수 있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손잡아 주신 선생님. 너무 고맙습니다. 따뜻했던 선생님의 손만큼이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현욱이가 선생님을 항상 기억할게요.

현욱 올림

강현욱 | 부산 우암초등학교 4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왕이모는 남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가족이에요.

To. 피 한방울 안 섞었지만 온 정성을 다해 준 왕이모께...

왕이모 안녕하세요. 저 지민이에요.

같이 살지는 않아도 하루하루 매일 보는 왕이모인데 요즘은 왕이모 뒷 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제 마음이 속상해요. 혹시 제가 요즘 4학년 사춘기라고 짜증도 많이 내고 왕이모한테 너무 변덕을 부려서 왕이모가 나 때문에 힘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되네요. 왕이모랑 저랑 만난지도 벌써 12년이 되네요. 엄마랑 왕이모는 30년이나 되는 자매같은 친구지만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함께 한 왕이모라서 저는 친이모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엄마가 왕이모랑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전까지는요. 왕이모,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왕이모는 저한테 아빠, 엄마 다음으로 정말 고맙고 가족같은 분이세요. 아빠는 바쁘고 엄마는 몸이 약해서 제게 해 줄 수 없었던 것들을 왕이모가 부모님처럼 챙겨 주셨어요.

왕이모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책을 다 가지고 다니니까 가방이 무겁다고 집에까지 걸어오면 지친다고 지금까지도 학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왔던 거 기억나세요?

다른 학부모들은 그냥 걸어서 데리러 오거나 데리러 오지도 않거나 자가용으로 데리러 오는데 왕이모는 페인트칠도 다 벗겨진 낡은 자전거로 외모는 꾸미지도 않고 절 데리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한번도 빠지지 않고 오셨잖아요.

왕이모는 저한테 항상 물으셨어요. “지민아, 왕이모가 늙어보이고 예쁘지도 않고 멋지게 꾸미지도 않고 낡은 자전거로 지민이 데리러 가는데 창피하지 않니?”하고 말이에요.

왕이모 모르셨죠?!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가끔은 아이들이 누구냐고, 할머니냐고, 너네 엄마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으면 왕이모냐고 물어보면 저는 “우리 왕이모고 우리엄마 언니라서 늙어보이는 거라고 다시 할머니라고 부르지만 해 너희들도 왕이모라고 불러”하고 당당하게 말해 주었더니 다시 얘기 안 해요.

왕이모, 저한테 왕이모는 자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한 분이세요. 만약 왕이모가 없었다면 지금 날아다니듯 잘 타는 자전거도 못 배웠을 것이고,

초등학교 4년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다녔을 거예요. 그리고 왕이모는 제 편에 항상 서서 제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 있을 땐 피를 나눈 가족 친지들보다 더 좋아해 주시고 저를 자랑해 주셨어요.

왕이모가 제 곁에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항상 당당하고 밝은 모습만 보여주시던 왕이모가 엄마랑 이야기 나누시며 많이 슬퍼하는 것을 봤어요. 결혼도 안하고 자식도 없어서 나이 먹는 게 많이 불안하다며 서글프게 우는 왕이모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더 슬퍼요. 왕이모답지 않게 왜 그렇게 슬퍼하고 불안해하세요. 왕이모, 왕이모한테는 제가 있잖아요. 아빠 엄마도 항상 왕이모한테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 해주시지만, 제 마음도 왕이모는 아빠 엄마와 같이 제 가족이에요. 이모가 자식도 없었으면서 결혼도 해보지 않았으면서 저를 자식처럼 정성으로 살피 주셨듯이 제가 왕이모를 보살필게요.

이모, 난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이모같은 친구를 둔 엄마처럼 저도 정말 마음을 다 줄 수 있고 내 자식을 맡길 수 있는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것과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것과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어요.

왕이모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빠, 엄마가 채워줄 수 없었던 것들을 왕이모가 함께 해줘서 제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어요. 왕이모는 남이 아니라 나의 두 번째 가족이에요. 항상 건강하게 제 곁에 계주세요. 제가 왕이모를 지켜드릴게요. 왕이모 사랑해요.

2020년 7월 23일 토요일 왕이모의 자랑 이지민 올림.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To. 사랑하는 아빠께

두 달 전 아침 엄마의 전화로 걸려온 119전화 한 통. 보이스피싱인 줄만 알았는데... .. 아빠의 사고 소식이었어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와 맺히는 눈물을 잊을 수가 없네요. 버스 정류소에서 계시는데 음주운전 차량이 정류소를 덮치면서 한 분은 사망하시고, 아빠는 2m이상 날아가 떨어져서 의식이 없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어요. 저녁 7시면 '보현아, 아빠왔다' 외치면서 반갑게 들어오시던 아빠인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현관문을 쳐다보고 아빠만 기다리게 되었어요. 늘 아빠가 집에와서 놀아주고 책도 읽어 주시는 게 당연한 일인 줄 알았어요. 아빠가 안 계시니 모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도 갈 수 없어 아빠 보고 싶은 마음과 걱정만 쌓여갔네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조금씩 움직이실 수 있다는 빛과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지나서 아빠가 열심히 재활운동을 하셔서 집에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다리도 손도 머리에도 아직 상처투성이고 걸음걸이도 절룩절룩 걸으시는 게 낫설지만, 지금 모습 이대로 아빠를 사랑

하고 감사해요. 그리고 잘 이겨내 주셔서 감사해요. 아빠가 저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살아계셔서 감사해요. 앞으로는 아빠가 잘 못 걸으시고 늦게 걸으시면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걷고, 귀를 다치셔서 잘 못 들으시면 제가 아빠의 귀가 되어드리고, 힘드시면 제 어깨에 기대고 저를 잡고 걸으세요, 아빠가 지금껏 저의 버팀목이셨으니, 이제 제가 아빠를 지켜드릴게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의 사랑하는 딸 보현 올림

김보현 | 경기 행신초등학교 5학년 | 교육부장관상 수상작 ■

할머니, 할아버지,
개나리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그게 개나리의 꽃말이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개나리를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손녀가 할머니
사랑했다는거 잊지마

대전 둔원고등학교 1학년 권서현

아빠는
내 영원한 아빠

경기 통진고등학교 3학년 최윤경

나를 꺼내준
선생님

울산 다운고등학교 2학년 전은진

천사로부터 온
편지 한 통

서울 미아초등학교 6학년 박주혁

첫 곱씨
제자

천안 한들초등학교 6학년 곽채린

손녀가 할머니 사랑했다는거 잊지마

To. 사랑하는 할머니

할머니, 안녕?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전인 어릴 때도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흐르고 편지를 쓸려니까 좀 어색하네. ㅋㅋ하지만 지금이라도 써서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뻐. 할머니가 내 곁을 떠난게 내가 초등학교 때니까 벌써 몇 년이 훌 지났네. 집에 있는 할머니 영정사진을 볼 때마다 할머니를 떠올리고는 해. 사실 안 볼 때도 떠올라. 옛날에는 할머니가 생각나면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눈물이 나지는 않아. 이제 좀 익숙해지고 무덤덤해 졌나봐. 그런데 아무리 할머니에게 감사했던 것들이랑 소중한 추억들은 잊혀지지 않더라고,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이렇게라도 내가 느꼈던 감사함을 전하고 싶어서야.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는 내가 받는 사랑이 당연하고 익숙해서 감사함보다는 즐겁던 감정이 먼저였던 것 같아. 지금 좀 커서 다시 되돌아보면 모두 감사해야 할 것들 뿐인 것 같았어.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머니를 꼭 껴안고 “할머니, 나 사랑해줘서 고맙고 내가 진짜 진짜 진짜 사랑해”라고 말하고 싶어. 지금도 할머니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과거에 있던 일들이 영화 필름처럼 내 머릿속을 지나가. 할머니가 맛있는 밥을 해주는 거

랑 목욕탕 가는 거, 텃밭에서 상추 따는 거. 오디 따먹는 거, 인형 받은 거, 과자 심부름 갔다 온 거, 병원에서 있던 일들 모두 나에게 하나하나 소중한 추억이었어. 할머니가 해주던 밥을 떠올리면 나는 옆에서 밥에 김을 말아주고 있던 할머니가 떠올라. 할머니가 해준 다슬기도 맛있고 다른 것들도 다 맛있었는데 할머니가 김을 싸주던 밥이 그렇게 맛있더라. 김치는 두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었지ㅋㅋ 할머니가 죽은 후에 다른 김치 먹기까지 적응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그리고 목욕탕에서는 내 몸을 뺨뺨 밀어주는 할머니랑 찬물에서 수영하던 기억이 나네. 그때 정말 즐거웠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 한다는게 좀 아쉽다.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의 내 마지막 기억이 암 때문에 병원에 누워있는 할머니 보러갔을 때인데, 내가 볼에 뽀뽀하고 집에 돌아갔었어. 근데 그 날 새벽에 아빠가 전화를 받고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오빠랑 나한테 말씀하셨어. 나는 장래식장에 가서도 직접 외당지 않고 별 생각이 안 들더라고. 그런데 시체 확인한다고 모였을 때 할머니가 딱 들어오는거야. 그때 갑자기 눈물이 ‘확!’났었어...이건 지금 생각해도 슬프네...갑자기 내가 우니까 어른들이 나를 내

보내셨어...그렇게 할머니가 땅에 묻히고 무덤이 완성됐을 때는 할머니가 편안하게 갔기를 빌었어. 할머니, 지금 거기는 어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목소리 들었어? 나는 할머니가 다음 생에는 좀 더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할머니가 내 할머니였던 모든 순간들이 내겐 행복이었고 큰 사랑을 받는 시간이었어. 할머니가 과자 심부름 시켰을 때 나는 할머니가 과자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그 과자를 내가 먹고 있더라고. 이뿐만 아니라 많은 모든 날들이 다 할머니의 배려였고 사랑이었다는 걸 그대는 나는 왜 몰랐을까...할머니 덕분에 나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잘 헤쳐나가고 있는 멋진 아이가 되었어. 앞으로 더 성장하면서 더 멋진 사람이 될 텐데 할머니가 살아있을 때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싶어도 그러질 못하네... 그래도 하늘에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 걸 지켜봐줘. 그러면 더 힘낼 수 있을 것 같아. 내 유년 시절을 '행복'이란 단어로 채워줘서 고맙고 날 따뜻하게 안아줘서,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할머니. 내가 사랑하는거 알지? 내가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 이 손녀가 할머니 사랑했

다는거 잊지마!!! 내 할머니가 되어줘서 정말 고마웠고 내가 많이 사랑해!

2020년 7월 17일 권서현 올림.

아빠는 내 영원한 아빠

To. 다음 생에는 오랜 추억을 쌓고 싶은 아빠께

안녕, 아빠! 나는 아빠 딸 윤경이야. 아빠한테는 커서 편지를 처음 써 보는 거 같아. 아! 지금 내 나이는 벌써 19이야.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 되는 나이인 20살이 돼. 나이를 말하니까 빠르지. 벌써 아빠를 못 본 지가 14년이 넘었네. 5살 때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갔다가 아빠랑 나만 깊은 곳에 들어가서 보트 타다가 갑자기 둘 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우리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됐잖아. 5살 어린 나이에 항상 내 옆에 있으면서 놀아줬던 아빠가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해서 그런지 나는 아직도 그 기억이 너무 생생해. 당시의 분위기·가족들의 비명·구조 대원들이 다급하게 물이 튀어드는 상황까지. 나이가 많이 어렸던 만큼 소중한 한 사람의 빈자리 그것도 부모님 한 명의 빈자리는 나에게 너무 컸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무조건 나랑 엄마를 두고 간 아빠를 가족들 모두에게 슬픔을 주고 떠난 아빠를 어린 나이에 어른들의 감정까지 신경 써야 하는 어른스러운 아이가 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든 아빠를 너무도 많이 원망했던 거 같아.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인데. 근데 사실 나도 아빠

랑 같이 계곡에 빠졌을 때 같이 하늘로 갈 수 있었던 건데 아빠가 나 얹은 곳으로, 구조 대원이 있는 쪽으로 죽을힘을 다해서 밀어준 거였잖아. 나의 목숨을 살려준 건 아빤데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어서 아빠를 너무 미워했던 거 같아. 미안. 아빠도 많이 속상했지. 아빠 덕분에 나는 지금 5살에서 19살이라는 14년 정도의 세월이 흐를 때까지 엄마 곁에서 가족 곁에서 잘 지내고 있어. 14년 동안 가족들은 항상 내 옆에서 힘이 돼줬고,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면서 같이 놀 때 즐거울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만들었어. 만약 아빠가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소중한 추억들도 쌓을 수 없었겠지? 또, 나를 자기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해 줬던 아빠를 생각하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는 거 같아. 혹시 아직도 내 주변에 우리 가족 주변에 맴돌고 있어? 5살 때의 나에게도 19살인 지금의 나에게도 아빠는 내 영원한 아빠고 소중한 내 사람이야. 어린 나이인 나를 두고 엄마를 두고 간 것에 죄책감은 없었으면 좋겠어! 아빠도 30대인 충분히 어린 나이였는데 나를 살려서 내가

가족들 곁에서 더 오랜 시간 있을 수 있게 해주고 떠났잖아!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 앞으로도 꼭 행복한 일만 가득하지 않을까지만 그때마다 우리 아빠 생각하면서 버텨낼게. 아빠의 소중한 여자인 우리 엄마도 내가 꼭 멋진 딸이 돼서 내 곁에서 가족들 곁에서 행복한 삶을 살다가 아빠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게. 그러니 이제 우리 걱정 말고 편안한 곳에서 푹 쉬어. 내가 성당가서 아빠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게. 다음 생에도 우리 엄마랑 결혼해서 내 아빠로 살아줘. 그때는 5년 말고 10년 20년 최대한 오래 3명이서 같이 살면서 여행도 가고 이야기도 많이 나누면서 행복하게 살자 아빠. 이제는 진짜 안녕. 사랑해 그리고 많이 고마워 아빠.♡

From. 다음 생에도 아빠 딸이고 싶은 19살 윤경이가

최윤경 | 경기 통진고등학교 3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나를 꺼내준 선생님

To. 내 마음 속 영원히 존재할 존경스러운 선생님, 김병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 운산외고 전은진입니다. 벌써 얼굴을 보지 못한지 3개월이 넘었네요. 잘 지내고 계시죠? 요즘 너무 힘든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쌤이 계속 떠올라요. 선생님이 떠오르고 생각이 나면 저는 제 스스로 채찍질을 해요. 이제 우리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그저 나를 공감해 주셨던 선생님 중 한 분인데 왜 나 혼자 이렇게 그리워하고 슬퍼하는지도 이해를 완전히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서 얻은 정답은 선생님의 말 한마디인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학교 특성상 기숙사 생활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적인 시간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평소 힘들면 울고 마음정리를 하는 편인데 여기서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괜히 울면 친구들 내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마음 놓고 울 시간이 마땅치 않으며 그냥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음... 잘하고 싶은 이유를 물으면 대개 대학 잘 가려고 또는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니까 라고 답할테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빨리 자리를 잡아서 부모님을 편하게 해드리는

게 제 꿈이에요.

선생님이 제게 추천해주신 병원 중에 부산고신대병원 있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병원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빠가 그 병원에서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몇 년을 병원생활을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병원을 오가며 지내고 계세요. 저는 1년을 넘게 부모님을 보지 못하며 옆 집, 친척 분들 집에 계속 옮겨 다니곤 했어요. 그때 제 나이는 7살, 저는 부모님께 버려진 줄 알았답니다. 아무 말 없이 두분 다 저를 떠나셨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집은 무너졌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행복한 하루를 계속 시작할 줄 알았던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저는 고모 집에 가장 오래 있었는데 고모도 많이 아프셨고 집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정집이 아닌 다 무너져가는 집이었어서 불도 안 들어오는 방 한 틈에 앉아 벽만 바라다 본 저의 생활은 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저희 아빠는 여전히 오른쪽 팔과 다리를 완전하게 사용을 못하시고 뇌수술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게

제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내가 커서 빨리 호강시켜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책임감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 저의 힘든 내면은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습시다.

그게 반복이 되고 힘든 부분이 하나씩 늘어나다 보니 저도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버렸고 학교에서 잘 대처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인 줄 아세요? 너무나도 힘들고 저의 힘든 것에 묻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아등바등거리고 있을 때 선생님을 만나고, 웃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만큼은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저는 마음도 무너졌지만 몸도 무너졌어요. 아시다시피요.. 그때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는 저혈압과 심장박동 수 빠르게 뛰어 조절이 안돼서 계속 쓰러진다. 먹으면 계속 토한다 등등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아파보신 선생님은 제게 공감과 격려를 해주셨고요. 제 담임선생님이셨던 박대광 선생님, 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김혁 선생님께도 당연히 감사하지만 솔직히 그때는 병기 선생

님이 너무 감사했어요. 담임도 아니고 학년부장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신경 안 써주셔도 되는 분인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주셨고 가장 공감해주셨으니까요. 음.. 사실 하나 알려드리지 못 한게 있어요.

사실 저는 학교 도움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되었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제 아픔을 이겨내고 싶은 의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마음의 상처라는게 우리가 신체에 당하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상처가 아니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감정이 격해지면 공황발작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숨을 잘 못 쉬었던 거예요. 게다가 그러다보니 부정맥이 터지고.. 그래서 쓰러지던 거였어요. 힘이 빠지면 쓰러진 거죠. 학교를 그런 상황에 다니면서 제가 의지할 공간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병기쌤이 딱 말씀해주셨을 때 울음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은진아 혹시 네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아픈 거 아니냐. 물론 심장이 아픈 건 여러 요인이 있지만 스트레스가 주요인이니까. 많이 힘들지? 그런데도 항상 웃는 모습만 보여주는게 안

타깝다. 그래서 선생님은 널 존경해.” 제가 아프지만 마음이 아프다고는 말 안했음에도 이렇게 말씀해주신 선생님을 보면서 뭔가 내 마음을 들켜 버린 거 같아 무섭고도 감사해서 울어버렸어요. 너무도 서글프게 선생님 앞에서. 제가 종업식 때 선생님께 마음의 병이 있다고는 밝혔는데 그 뒤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병원 추천해주실 때 아빠를 떠올릴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이 제 아픔을 외면하실 때 저를 감싸주시고 공감 해주신 김병기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남들은 그냥 선생님이 해야 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고 느끼고 얘기할진 몰라도 당사자인 저는 언제나 그 감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다른 학교로 가서서 보지는 못하겠지만.. 그리고 많은 학생들 중 선생님께서 저라는 학생은 그들 중 한명 일테지만 저는 17살의 1년에서 가장 기억나는 인물을 뽑으려면 주저없이 선생님을 택할 거예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무서웠던, 그 누구도 꺼내주지 못한 제 스스로의 감옥에 웃음을 주셔서, 공감을 해주셔서, 진심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말. 너무나.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꼭 성공해서 찾아뵙게요.

2020년 어느 하루
선생님의 학생, 울산외고 전은진 올림

천사로부터 온 편지 한 통

아침 편지 고도원 아저씨께

아저씨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저씨는 저를 모르지만 저는 아저씨를 작년에 처음 알게 되었는데 혹시 저를 기억하실런지요? 저는 작년에 우연히 초록우산에서 주최하는 ‘감사 편지 대회’에서 아저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글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희 엄마는 아저씨의 ‘아침편지’를 보고 저에게 좋은 글들을 읽어 주시곤 합니다. 초등학생인 저에게도 따뜻한 생각과 마음이 좋아지는 글들을 읽게 해주셔서 다시 한 번 아저씨께 감사드려요.

작년 이맘때쯤이었지요! 제게 너무나 소중한 할머니를 다시 보게 해주신 고마운 분께 ‘이 편지가 과연 기증자 분께 전달될까?’ 의구심 반으로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저씨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제게 천사로부터 온 편지 한 통을 소개하려 합니다.

저희 할머니는 백혈병을 앓고 계십니다. 저는 그 병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완치까지는 매우 힘들고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백혈병이라는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엄마도 저도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남

니다. 골수이식만이 유일한 치료인데 가족 간에도 골수가 맞을 확률은 매우 적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가족들도 안 맞았던 골수를 너무나 고맙게도 선뜻 기증해 주시겠다는 분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현재 이식 후 힘드시지만 할머니께서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고 계시며 우리 가정에도 희망 꽃이 피었습니다.

‘감사편지 쓰기’ 덕분에 그분께 쓴 편지는 조혈모세포협회를 통해 전달되었고 몇 달이 지나 기증자 분께서 답장을 써주셨습니다. 원래 기증해 주시는 분이나 받는 분이나 서로를 절대 알 수 없어 편지가 전달될지도 몰랐는데 답장까지 받게 되어 놀랍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할머니께 골수를 기증해 주신 것도 너무나 고마운데 답장까지 주시다니 정말 천사로부터 온 편지 아닐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아침편지’에서 아저씨께서 이 편지를 소개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골수이식에 참여하게 된 공여자입니다. 먼저 수여자님의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어서

입니다~”로 시작하는 공여자 선생님의 말은 제 마음과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리어 감사하시다니..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많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망을 품고 계실 가족 분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어려운 결정을 하셨다고.. 최대한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드리기 위해 기증을 결심하신 날로부터 좋은 음식, 좋은 생각과 운동도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건강한 골수를 주실 수 있었고, 기증도 그리 힘들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기증을 위해 약 4-5달 동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려는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오히려 더 큰 선물이고 소중한 시간이셨다고.. 오히려 이런 소중한 시간들을 갖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마지막으로 수여자님도 빨리 쾌차하셔서 새로운 삶을 사시기를 바라신다며 편지 주신 할머니 손자에게도 고맙다 하시며..

저는 아직 그분의 이름도 얼굴도 모릅니다. 아니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시네요. 그래도 이런 편지는 누군가에게 아니 모두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런 소중한 분과의 인연을 만들어주시고 천사의 편지를

받게 도움 주신 감사 대회에도 감사드리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런 기회를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편지가 소개 안 되어도 천사의 편지는 날개를 달고 우리 할머니처럼 병으로 아파하시는 모든 분께 희망의 약을 전달하는 그런 날이,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그런 날을 고대하며 이 글을 씁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아저씨를 비롯해서 이 대회에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편지가 감사한 주혁 올림

박주혁 | 서울 미아초등학교 6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첫 광 씨 제자

To. 늘 생각하는 광예주 선생님께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같은 성을 가진 첫 번째 제자 채린이에요. 요즘 코로나19로 학교수업에 온라인 수업까지 준비하시느라 많이 바쁘시죠? 저는 기대했던 마지막 초등학교 6학년을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보내게 돼서 조금 속상해하고 있어요ㅠㅠ 집에 있는 것보다 학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은데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거든요.

그래서 요즘 선생님과 함께 했던 감마을 4반이 더 생각나는 것 같아요. 3학년 말에 전학 와서 친한 친구도 없었고 모든 게 낯설기만 했던 학교였는데 수업 첫 날, 제가 선생님과 같은 성이라는 이유로 친구들이 저를 더 기억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제 성씨가 조금은 특이한 성씨라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선생님께서 '우리는 성이 같으니깐 먼 친척이야'라고 말씀해주셔서 선생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제 성 씨도 약간 좋아졌어요. 그리고 선생님의 '첫 광 씨 제자'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선생님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 1년 동안 더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했구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선생님과 함께 했던 감마을에서의 1년은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는 성취감을 제대로 느꼈던 해였어요. '국학기공'이라는 우리나라 전통무예를 배워 '천안시장기 국학기공대회'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셨죠. 선생님의 '잘한다.'는 칭찬 한 마디에 늘 자극받아 센터에 서고 싶어 더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연습하고 무대에 올라 그 위에 듣는 환호성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에게 역사 공부를 시켜주고 싶어서 일부러 계획하신 '선생님과 함께 하는 주말 경북궁 기차여행' 이건 모듬별 공기대회에서 이겨야만 갈 수 있었잖아요. 선생님과 같이 계다가 주말에 기차를 타고 경북궁에 갈 수 있다니 이걸 무조건 이겨야만 가능한 일이었지만 그 당시 전 공기 왕초보였기에 저희 모듬이 이긴다는 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로지 선생님과 기차여행을 가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그 날부터 바로 공기 연습을 했었어요. 외할머니부터 엄마, 아빠 심지어 이모

부까지 저의 공기 실력을 위해 온 식구가 동원이 됐을 정도로 연습을 했는데ㅎㅎ 우리 모둠에 민폐를 끼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연습했더니 공깃돌 하나도 못 잡던 제가 결국 ‘경복궁 기차여행’을 다녀왔잖아요. 이 일 또한 저에게 목표에 대한 도전과 노력을 통한 성취감(결과)을 배울 수 있던 일이었어요. 선생님의 관심과 격려의 말 한 마디가 제 밑에 숨어있는 승부욕을 불러일으켜줬던 것 같아요.

바둑을 제대로 배운 지 1년 밖에 안 된 제가 ‘충청남도 교육감기 바둑대회’에서 학년부 1등을 하기 위해서 매일 밤 9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것도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였다는 거 선생님 아세요? 5학년 때 충남 대표로 선발되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기도 했지만 교육감 상이 따로 학교로 보내진다는 얘기를 듣고 1등을 목표로 열심히 해서 결국 1등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저는 선생님의 ‘멋진 괄 씨 첫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늘 잘한다고, 할 수 있다고 관심을 갖고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

으셨던 선생님께 더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더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서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아직도 큰 일을 앞두고 긴장과 걱정을 많이 하는 ‘마인드 컨트롤’이 잘되진 않지만 그래도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건 확실히 알게 돼서 공부할 때도 목표 세우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어요. 4학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5학년 때에도 역사 동아리 하면서 선생님과 계속 함께 했고, 지금은 전근 가셨지만 여전히 선생님과 연락하는 건 4학년 1년이 모두에게 너무나 특별했기 때문일 거예요. 에너지 넘치시는 선생님을 학교에서 뵈 수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 선생님의 추억 늘 기억하며 연락도 자주 드릴게요.

저는 다른 친구들과과는 또 다른 특별함(같은 성씨)이 있잖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선생님의 다른 제자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멋진 괄 씨 첫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 할게요~! 선생님은 저의 영원한 멘토이자 저 괄채린을 괄채린으로 만들어주신 분이예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세요. 선생님, 사랑해요... 그리고 보고 싶어요.

From. 선생님의 멋진 꺾 씨 첫 제자가 되고픈 채린 올림

곽채린 | 천안 한들초등학교 6학년 |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작 ■

사랑하는 엄마,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더 이상 엄마가
내 인생의 관객이 아닌,
엄마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면 해.



‘고마워’ 이 세 글자

전남 예당고등학교 김나현(가명)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

서울 한빛맹학교(중학교) 2학년 이건호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대전 신평초등학교 6학년 이지은

엄마의 메리야스

충남 청양초등학교 2학년 진연우

나의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

인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윤

‘고마워’ 이 세 글자

To. 나의 안식처, 엄마

안녕, 엄마.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딸 나현이야.

엄마한테 보내는 편지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다. 그치? 더 늦기 전에 엄마한테 꼭 하고픈 이야기가 있어서 천천히 글자를 적어 내려가. 그래서 말인데 오늘은 엄마가 기억의 가장 모퉁이에 꾸깃꾸깃 접어 넣은 시간을 꺼내 볼까해. 엄마는 아직도 그 때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아파한다는 걸 내가 가장 잘 알기에,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한번은 꼭 말하고 싶었고, 그게 지금이야.

엄마, 언젠가 매일 아침마다 내가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비는 기도노트를 작성하며 하루를 시작한다는 엄마의 말을 듣고 내가 아팠던 그 때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는지 사무치게 느낄 수 있었어. 건강하게만 커달라는 엄마의 말은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때부터, 아마도 엄마에게 처음으로 내 존재를 알려왔던 순간부터 들으며 자라왔음이 분명한데 왜 나는 그 평범한 바람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예쁜 우리 엄마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들었을까.

잔병치레도 없이 병원과는 담을 쌓고 줄곧 건강하게만 자라오던 나였기에 갑자기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욱 놀랐지? 엄마, 나는 그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와서 우는 엄마를 보고 덜컥 겁이 나서 차마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 그런데 엄마, 나에게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우는 엄마는 얼마나 겁이 났어? 대학병원으로 향하던 응급차 안에서 괜찮을 거라 날 다독이며 억지웃음 짓던 엄마는 속으로 얼마나 울고 있었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내려와서도 새벽마다 아프다고 깨는 나 때문에 간호사 선생님께 달려가던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어?

내가 갑작스럽게 아파 병원에 가게 된 그 날부터 마지막 외래진료를 마칠 때까지 엄마의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차갑게 식을 때까지 마음고생이 심했다는 걸 잘 알고 있어.

처음 아파서 달려간 병원 응급실에서, 내게 “검사만 끝나면 금방 집에 갈 수 있어.”라고 말했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는 엄마, 아직도 그 때만 생각하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는 우리엄마, 내가 누구보다도 엄마의 수

고를 잘 알면서도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말들이 있어. 병원에 있으면서 사소한 걸로 짜증내고 밥 안 먹는 걸로 애태워서 미안해. 그리고 엄마가 내 옆에 있어달라고 고집 부려서 미안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 말처럼 할 머니가 병원에 있어줘도 괜찮았을텐데 내가 아프다는 이유로 엄마한테 괜한 심통을 부렸던 것 같아. 아니, 더 솔직해지자면 아픈 걸 핑계 삼아 엄마랑 딱 붙어있는 게 내심 좋았던 것 같기도 해. 이런 나의 못된 어리광에도 회사도 쉬면서 내 옆에 계속 있어줘서 정말 고마웠어. 엄마가 언제 나 내 곁에 있어줬기에 내가 병원에서의 시간을 씩씩하게 견뎌낼 수 있었어.

갑자기 조그맣고 딱딱한 보호자 침대 위에서 불편하게 자던 엄마 모습이 떠올라 너무 미안해지네. 그런데 엄마 사실 나는 엄마가 걱정하는 것만큼 병원에서의 기억이 나쁘지만은 않아. 지금에서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나는 '추억'이라고도 말 할 수 있어. 물론 엄마를 고생시키고 아파서 힘들었던 시간까지 좋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나는 병원에서의 기억을 떠

올리면 아파했던 기억들보다는 학교에서 지루하게 보내야 할 시간(^.^)에 엄마랑 병원 매점에서 아이스크림 먹던 기억, 손잡고 산책하던 기억, 나란히 누워 드라마보던 기억처럼 좋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히 채워 나가 내가 이렇게 병원에서의 기억을 밝게 물들일 수 있었던 건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엄마 덕분이야. 그러니까 엄마, 더는 눈물로 번진 시간을 끌어안고 자책하거나 아파하는 것은 그만하기로 약속해줘. 그리고 아파했던 나의 모습들은 이제 그만 지우고, 행복했던 순간들의 색으로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을 예쁘게 물들여주라.

사랑하는 엄마, 엄마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어. 나는 더 이상 엄마가 내 인생의 관객이 아닌, 엄마 인생의 주인공이었으면 해. 엄마가 나의 '엄마'라는 건 어디서든, 언제든 절대 변함없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감사한 사실이야. 그런데 나는 내가 소중한 감사하게 여기는 이 사실에 얽매어 엄마가 엄마의 진짜 '이름'을 놓지 않았으면 해. 엄마의 무대를 허둥지둥 마무리 짓고 내려와 나를 향해 박수만 보내주고 있기엔

엄마는 너무 아깝고, 넘치게 멋있는 사람이야. 난 말이야, 엄마가 어디 있던 온 마음을 다해 날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엄마, 관객석이 아닌 넓은 무대로 나아가 엄마만의 공연을 계속해줘. 엄마가 무대 위에서 빛나는 동안 나도 최선을 다해 근사한 무대를 만들어 나갈게. 나 믿어줄 수 있지?

엄마, 내가 아직 엄마가 되어보질 않아서 엄마가 날 생각하는 마음의 크기를 감히 가늠할 순 없지만 엄마가 한 순간도 빠짐없이 날 사랑해왔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 그리고 몸소 느끼고 있는 사랑은 내가 삶이라는 여정 위에서 방향할 땐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는 이정표가, 앞이 너무 캄캄해 나아갈 수 없을 땐 따사로이 날 비추는 태양이, 외로움에 뒤돌아 도망치고 싶을 땐 손을 잡아주는 동반자가 되어 항상 내 곁을 지켜주지. 앞으로 이런 엄마의 무한한 사랑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더 건강한, 더 자랑스러운 엄마의 딸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할게. 고맙다고도 말하고 싶은데 ‘고마워’ 이 세 글자에 엄마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답길지 모르겠어. 하지만 나를 세상에서 제일 잘 알고 이해해주는 엄마는 언제나처럼 내 마음을 알아채고 미소지어주겠지?

엄마, 항상 고맙고, 나는 언제나 엄마를 씬 없이 사랑하고 있어.

2020년 7월 7일 화요일
From. 엄마의 안식처가 되고픈, 딸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

저를 도와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건호입니다. 이전에 눈에 암이 생겨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시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2학년 때 눈에 종암이 생겨 4학년 때 학교를 1학기만 다니고 모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수술은 서울대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암이 골육종으로 전이되어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또 서울대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력을 잃었을 때 저는 그 때 한심했던 것 같습니다.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학교에 돌아오고 많은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도와주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볼 때도 놀러 갈 때도 가족들은 날 위해 설명하고 안내하며 나의 눈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얻어 제가 좋아하는 게임을 가족들의 도움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과 같은 장애를 가진 친구들을 만나면서 용기를 얻고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 저 또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힘든 일을 잘 견디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습니다. 올해 골육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서운 암이 재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골육종 제거라는 큰 수술과 장기간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요보호 학생으로 '꿀맛 무지개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올해 코로나로 인해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을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학교 원격 수업과 '꿀맛 무지개 학교' 수업 모두를 받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학교 수업이 너무나 소중하였습니다. 저는 병원에 이 주에 한 번씩 입원을 하는 환경에서도 항암 주사를 맞고 수업을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꿀맛 무지개 학교' 수업만 들어도 되는데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다리에 큰 수술을 해서 저는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고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모두 고통이었지만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응원해 준 덕분에 침대에서만 누워 있던 저는 지금 목발을 사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잘 해주신 서울대 병원 의사 선생님과 간호 선생님들 덕분에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학교에 갈 수는 없지만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연락을 해줍니다. 저를 생각해 주는 친구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와 누나는 이천에 살고 학업을 위해 서울에 어머니와 살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저의 재활 치료와 일상생활을 위해 고생하시는 것을 항상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를 위해 가족들 모두 희생하시고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고자 하고 있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 중에도 저는 긍정적인 사고로 하루하루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견디고 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와 큰 수술을 받은 학생입니다. 긴 병원 생활을 하고 나서 특수학교에서 받은 특수교육은 저에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고 특수교사로서의 꿈을 갖게 하였습니다. 장애 학생들도 어디서나 자유롭게 공부하고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기회를 갖는다면 각자가 잘하는 분

야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관계가 진보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에서 공부해 본 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수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학과에 진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합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또한 유튜버가 되어 제가 장애를 이겨내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 모습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고 도전을 꺼리지 않는 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불편함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우연히 TV에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유튜버로 활약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사로 일하면서 어린이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행복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멋진 크리에이터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결승선은 내게 결승선이 아니었다. 오늘 나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이 결승선은 내게 새로운 출발선이었다.”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매일매일 병원에서 힘든 항암 치료를 마치고 오늘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모두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결승선을 잘 도달했지만 내일을 위한 새로운 출발선이라 생각하면서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것입니다.

너무 힘들었고 병원에서 있는 시간이 모두 고통이었지만 가족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주고 응원해 준 덕분에 침대에서만 누워있던 저는 지금 목발을 사용해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치료를 다 끝내면 열심히 노력하여 저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어도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가족, 서울대 병원 의사, 간호사 선생님, 학교 선생님, 친구들 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고맙습니다.

2020년 7월 7일 이건호 올림

이건호 | 서울 한빛맹학교(중학교) 2학년 | 서울교육감상 수상작 ■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To.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지은이에요. 등교 개학이 시작되고 부터는 많이 찾아뵙지 못해 너무 보고 싶어요.

사람이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대요. 저도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우주만큼 크지만, 두 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모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쑥스럽지만 이번 기회에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올해 봄, 코로나 바이러스로 학교도 못 가고 여행도 못 다니며 집안에만 있으려니 답답하고 불안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께서 안전하게 시골에 내려와 지내라고 허락해 주신 덕분에 즐겁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농사지을 때 도와달라시며 일부러 심는 것, 캐는 것 조금씩 남겨주시는 배려 덕분에 콩 심고, 고추 심고, 상추도 심고, 쪽도 뜯어보았어요. 땀 뻘에 밭에서 일하러니 힘들고 땀도 났지만 그럴 때면 또 얼른 아이스크림을 주시며 시원하게 해 주셨죠. 맛있는 아이스크림과 함께 더위 식히던

그 시간도 너무 행복했어요. 저녁이면 뽕나무 잎도 따고, 참나물, 민들레, 머위 등을 따다가 나물반찬 해 먹으며 자연의 먹거리들을 직접 수확하고 맛보았지요. 매 시간 시간이 정말 모두 귀중했어요. 하지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신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서 해마다 이렇게 고생하신다고 생각하니 마음도 아프고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비료 포대에 그림을 그려서 직접 연을 만들고 밭에 나가 날려본 추억은 평생 기억에 남을 거예요. 참 초라한 재료들 가지고 만들었는데 어쩔 그리 멋진 연이 완성되었을까요. 내가 직접 만든 연이 하늘을 날아오를 땐 제 마음도 함께 하늘 높이 날아올랐어요. 무언가 내 뒤에 크고 웅장한 산이 든든히 나를 지켜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고 학원도 하나둘 열기 시작하면서 시골을 떠나 대전으로 돌아와야 했을 땐 정말 아쉬웠어요. 평생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이번 봄의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저희에게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본 모든 식물에는 뿌리가 있었어요. 식물의 뿌리는 땅에서 물을 빨아들여 줄기로 전달하고, 식물을 지지해 주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바로 저의 뿌리세요. 넘치는 사랑으로 제게 필요한 마음의 양분을 주시고, 제가 세상의 바람에 흔들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를 지지해 주셔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나 봐요.

할머니, 할아버지, 개나리의 꽃말이 무엇인지 아세요? ‘나의 사랑은 당신보다 깊습니다’ 그게 개나리의 꽃말이래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개나리를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을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의 하얀 곱슬머리와 허리 숙인 할아버지의 가슴에 셋노란 개나리 한 송이씩 꽂아 드리며 제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요. 개나리의 꽃말처럼 두 분이 제게 주신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은 들려 드리고 싶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적적하고 외롭지 않으시도록 더 자주 찾아뵙고 안아드릴게요.

저는 사랑이 가득하고 따뜻하신 두 분께서 제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사실이 너무 기뻐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빠를 낳아주시고 이렇게 멋지게 키워 주셔서 참 감사해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따뜻한 마음씨로 아빠를 키워 주셔서 우리 아빠도 이렇게 친절하고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하고 정말 사랑해요♡

사랑하는 손녀 지은 올림

엄마의 메리야스

To.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난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좋아요. 엄마는 저보고 평생 친구가 되어달라고 하시죠. 당연히 엄마가 제일 좋은데 친구 해드려야지요. 엄마는 저를 뱃속에 가졌을 때 흑이 너무 많아서 수술을 앞두고 있다가 제가 있는 걸 알고 수술을 안 하고 저를 선택하셨잖아요. 아빠가 직업도 없어서 돈도 없었는데 배 안에 흑에 아이까지 생겨서 걱정이 많았다면서요. 그래도 그 힘겨움은 저를 보면 기억도 안 나신다면서요. 제가 너무 예뻐서요. 이렇게 예쁜 연우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전 엄마의 구멍 난 메리야스를 보았어요. 엄마는 옷 속에 있어서 안 보이는 거니까 입어도 괜찮다고 하셨지요. 저에게는 예쁜 앵두 그림 메리야스를 사주시고 엄마는 낡고 구멍 난 메리야스 입으신 거 다 알아요. 엄마도 예쁜 옷 입고 싶으신데 저희 사주시느라 못 사신 거죠.

엄마 지금은 코로나로 아빠가 회사를 쉬시고 저희는 집이 없어서 할머니 마당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엄마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 건강하고 같이 모여 살잖아요. 엄마 예쁜 집 생기면 공

주 이불이랑 이층 침대도 사주신다고 하셨죠. 하지만 엄마 저는 엄마 품이랑 엄마 냄새가 제일 좋아요. 컨테이너 넓고 책도 많아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엄마 제 꿈은 의사예요.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도 치료해주고 돈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될 수 있잖아요. 엄마의 구멍 난 메리야스는 예쁜 연우가 꼭 핑크색 꽃무늬 메리야스로 사드릴게요. 엄마 우리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고 억만금을 쥐도 안 바꿀 연우랑 윤우가 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해주세요.

엄마 며칠 전에 엄마 손가락이 부러져서 피가 나는 걸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엄마 절대로 아프면 안돼요. 연우랑 약속해주세요. 저도 받아쓰기도 열심히 하고 수학도 잘 풀게요. 엄마 고추밭에서 일해서 땀 냄새나도 학교 끝나고 나올 때 엄마가 기다려주시고 저 안아주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엄마의 흙 묻은 신발도 땀 냄새도 이젠 괜찮아요. 하나뿐인 우리 엄마, 연우 엄마라서 감사해요.

엄마의 구멍 난 메리야스를 연우가 바꿔주는 그 날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너무 좋아요. 엄마는 마늘 까시고 저는 엄
마에게 편지 쓰고 점점 깜깜해져가는 밤이네요. 엄마 품에 안겨 자야겠어
요. 연우 엄마 사랑해요.

From. 엄마 딸 진연우 올림

진연우 | 충남 청양초등학교 2학년 | 충남교육감상 수상작 ■

나의 영웅, 대한민국의 영웅

To.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모든 영웅, 소방관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여자고등학교 2학년 3반에 재학 중인 김윤이라고 해요.

다름이 아니라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제5회 감사편지 쓰기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해서 저의 영웅이시자, 대한민국의 영웅이신, 저에게는 너무 자랑스러운 분들이기에, 감사하다는 말을 편지로 한 번 짚은 꼭 드리고 싶어서 이 기회에 한 번 편지 남겨 봐요.

제가 소방관을 존경하는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자신보다 남을 위해 희생하시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저의 꿈이자, 자부심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소방관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맞을 것 같아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꿈을 유지하고 있어요.

중 2때, SNS에서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에서 전 소방관이자, 현 국회의원이신 오영환님이 말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로 ‘아! 이거 정말 힘

든 직업이야. 하지만 내가 미래에 소방관이 되어 지금의 소방관 분들을 도우며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영환님께서 모세의 기적을 말씀하시며 “저희는 영웅이 아닙니다. 위급한 상황에 소방차, 구급차가 골든타임 안에 도착하도록 도와주시는 여러분들이 저희 소방관의 영웅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라는 말을 하셔서 마음 한 구석이 쨍하게 들려왔어요.

소방관이 꿈이 된 후로 저는 소방차, 구급차만 봐도 설레고 뽀뽀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진짜 급한 일인가 보다 하며 혼자 밀에 소방관이 된 저를 상상하곤 해요.

중학교 2학년 때 ‘나의 꿈 신문 만들기 대회’에서도 소방관을 주제로 4절지 2장이 되는 분량으로 만들어 상도 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꿈을 꾸게 만들어 주신 모든 소방관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해요.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직업체험을 ‘인천 공단 소방서’로 갔어요.

소방관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알게 되었고, 소방차, 구급차도 타 본, 제

인생에서 너무 행복한 하루였어요. 그 때 저에게 도움을 주신 ‘이상직 소방관’께서는 요즘에도 제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알려주신 점 너무 감사해요.

학원가는 길에는 ‘동춘 소방서’가 있어요. 항상 저의 꿈에 자극을 주는, 학원가는 길마저도 저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예요.

4월 14일 예는 11시에 학원이 끝난 후 동춘 소방서에 비타500 한 박스를 선물 해드리고 왔어요. 감히 제가 소방서에 발을 딛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떨리는 순간이었어요.

그 늦은 시간까지 저희들을 위해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는데 너무 소중하게도, 너무 고맙다며 힘내겠다며, 거기에 계시던 소방관 분들께서 조심하 가라고 단체로 저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하시는데 감히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해주시는지.. 그저 감사하고 존경스러웠어요.

소방관, 이 세단어로 저를 항상 자극주고 존경심을 만들어 주시는, 뉴스에서도 항상 소방관 분들이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친구들과 여러 어른 분들, 부모님이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시면 감히 쉽게 말하기에 너무 죄송하지만 “소방관이에요”라고 대답을 하곤 해요.

그럴 때마다 몇몇 사람들은 정말 멋지다며 감탄하지만 대부분은 그 위험하고 힘든 직업을? 게다가 여자가?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떤 말이든 응원이라고 생각하며, 후회 없이 공부하고 소방관이라는 꿈을 꾸며 열심히 사는 저 김윤이 되어 보려고 해요.

물론 고2가 되면서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꼭 해내고야 말겠다’라는 강한 신념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소방대원 분들과 함께 일하는 날이 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기다려요.

구급대원 분들도 요즘 코로나 19로 많이 힘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소방관덕분에 #구급대원덕분에 #의료진덕분에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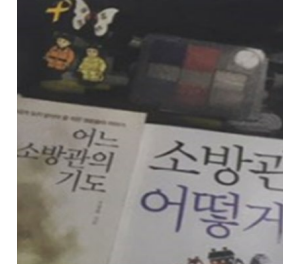
처음으로 입어본 방화복!!
너무 예뻐다!!♡



엄청 높은
소방차!!♡



직업체험 때부터
현재까지 많은 도움을 주시는
알고 보니 중학교 선배님??!!
정말 감사한 분♡



소방관 뱃지들부터 태극기 나비,
세월호 리본.. 항상 봉사정신을
가지고 꿈을 위해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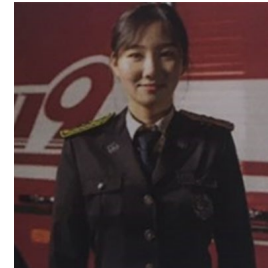
신이시여,
제가 부름을 받을 때에는
아무리 뜨거운 화염 속에서도 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힘을 주소서.

너무 늦기 전에 어린아이를 감싸 안을 수 있게 하시고
공포에 떠는 노인을 구하게 하소서.

내가 늘 깨어 살필 수 있게 하시어
가냘픈 외침까지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화재를 진압하게 하소서.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 저의 목숨을 잃게 되면
신의 은총으로 저의 아내와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어느 소방관의 기도 中-



내가 가장 좋아하는, 닮고 싶은,
경북 소방서 홍승희 소방사 분.
여자 소방관도 하면 된다!!
대한민국 모든 소방관 분들께
나의 응원소리가
들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P.S 항상 소방관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김윤 올림-

선생님이 제게
행복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께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늘 도움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게요.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게요

충북 단양고등학교 3학년 김민주

선생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

서울 송덕초등학교 4학년 정지우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경산 사동고등학교 1학년 이지연

여름이라 더운
겨울이라 춥다는 것을

구미 경복오태초등학교 6학년 진찬호

이젠 제가 외할아버지의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학년 이희웅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게요

To. 나의 세잎클로버, 가연T

선생님 저예요, 민주!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저는 지금 여름에 머물러 있어요. 편지를 읽고 있는 선생님의 계절은 어때요? 선생님을 닮아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네요. 선생님이 이 글을 읽어 보시길 바라는 마음 반, 축스러운 마음 반을 섞어 그동안 제가 표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을 최대한 말로 녹여 내보려고 해요.

저는 지금 시험기간인데 너무 힘들고 혼란스러워서 선생님께 감사 인사드릴 겸 쉬러 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의 인연이 지금까지 닿았네요. 그때의 저는 지금보다 때가 묻지 않고 막연히 해맑은 아이였겠죠. 지금 와서야 그때의 제가 선생님께 어떤 첫 인상을 남겼는지 걱정이 되면서도 궁금해요. 고등학교 올라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소위 말해서 “짜수없어 보인다”, “차가워 보인다”, “친해지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런 말의 대부분이 저의 귓가에 들렸어요. 그때부터였나 봐요. 바보처럼 웃기만하는 제가 된 게. 원래 웃음이 많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기 싫어서 자연스럽게 친구들을 만나면 인사를 건

네는 것보다 웃음이 먼저였어요. 이렇게 살면서 억지웃음을 많이 지어본 게 처음이었어요. 이게 잘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혼란스러웠지만 그게 점점 습관이 되었어요. 거절도 잘 못하다 보니까 이용당하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주위 친구들에게 ‘호구’라는 소리만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속상했지만 미련은 없었어요. 진심을 다해서 잘해준 것 밖에 없었지만 후회 없는 선택이었기에 미련도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한테 상처받을 대로 받은 저에게 진정한 미소를 짓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선생님이셨어요.

가장 힘들 때 다가온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저의 힘든 시기 옆에는 선생님의 위로나 응원이 있었어요. 시험 출제 오류로 제 시험 점수의 일부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선생님들의 잘못으로 너희가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돼”라고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때 티는 안냈지만 진짜 울컥했어요. 백 번의 포옹보다 그런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이렇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 났을 때나 다쳤을 때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나를 이렇게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는지 새삼 깨달았고 덕분에 점점 자존감도 높아졌어요. 바쁘실까 혹여 귀찮은 존재가 될까봐 새해나 스승의 날 이렇게 특별한 날에 종종 감사 인사를 특으로 드렸었죠. 단어 하나 하나에 선생님의 사랑이 핸드폰 너머로 많이 느껴졌어요. “민주가 정말 예뻐서 선생님이 주는 사랑 온전히 잘 받아주는 것 같다.”, “선생님 너무나 행복한 사람임을 민주 덕분에 느낀다.”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저도 선생님께 행복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안심했어요. 제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나마 수업 열심히 듣는 거였는데 3학년 되고나니깐 선생님 수업 들을 일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영어 수업이어도 선생님 수업은 너무 재밌고 항상 기다리게 되는 수업이었는데 못 듣는다니 절망이란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일부러 영어권 문화가 있는 날이면 선생님 한 번이라도 뵈려고 중 치자마자 선생님이 계신 반으로 달려가는데 선생님은 모르셨죠? 그만큼 선생님 수업이 너무나 듣고 싶어요. 학교에 가는 수많은 날들 중 선

생님과 함께하는 목요일 방과 후 시간이 유일한 행복이자 저의 은신처였어요. 그렇게 싫던 청소시간이 목요일만 되면 그토록 기다려졌어요. 선생님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사랑받는 법을 자연스레 배우고 상대방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는 것도 연습하고 너무 잘해주는 것도 자제하며 성장하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언제나 밝게 인사하는 것. 저도 노력해봤지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저를 볼 때면 “민주 안녕”, “오랜만이네”라는 등 저의 안부를 물어보시고 밝게 인사해 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인데 마주칠 때마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말로는 못 할 정도로 너무 많은 배움과 행복을 전해 받았지만 이렇게 편지로만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는 것조차 죄송스럽고 아쉬워요. 이렇게 조심스레 편지를 쓰다 보니 벌써 새벽 4시 6분이네요. 이렇게 새벽에 편지를 써보는 것도 처음이고 선생님께도 편지를 쓰는 것이 처음인 것 같아서 기분이 새로워요. 그리고 선

선생님께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말씀드릴 기회가 마땅하지 않아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 대학교 안 가고 바로 경찰 시험 준비해요. 비록 대학교는 안 가지만 열심히 시험 준비하고 합격해서 멋진 경찰이 되어서 선생님 꼭 찾아뵈러 갈게요 이게 제 20대의 버킷리스트예요. 한나 선생님 수업 시간에 버킷리스트를 적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경찰 돼서 선생님 찾아뵙는 게 떠올랐어요.

그거 아세요? 세익클로버가 행복을 뜻하고,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뜻한 대요. 보통의 사람들은 네잎클로버를 찾기를 더 간절히 원하지만 저는 행운도 좋지만 지금 현재에 가장 중요한 행복이 있었으면 해요. 선생님이 제게 행복과 희망을 주신 것처럼 저도 선생님께 일시적인 행운이 아니라 늘 도움이 되고 함께할 수 있는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게요. 제가 경찰 돼서 멋지게 찾아뵙는 그 날에는 제가 식사 대접할게요. 기다림이 행복하면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게 할게요! 그때가 언젠가 되더라도 선생님은 변함없이 지금처럼 밝고 아름다우실거예요. 선생님은 저

의 최고의 선생님이시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너무나 좋으신 선생님이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꼭 건강 챙기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From. 선생님의 최고의 애제자가 되고 싶은 민주 올림

선생님이 주신 믿음과 용기

가까이 있지만 찾아볼 수 없는 김미언 선생님께

김미언 선생님 안녕하세요? 2018학년도 제자 정지우입니다. 지난 5월 15일, 선생님께 드리려고 했던 스승의 날 감사편지는 아직 제 가방에 있습니다. 지난 6월 3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 학기의 첫 등교를 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미 4학년 8반의 밝은 미래들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착한 학교에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겼고 낯선 풍경이 제 눈 앞에 펼쳐졌습니다. 저는 송덕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새로운 규칙을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신입생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실 외에 다른 곳에 가지 못한다는 규칙이 있어서 저는 선생님께 제 편지조차도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제 진심이 담긴 편지를 전해드리지 못하며 편지를 제 가방에 넣어 두기만 할 때마다 감사함과 죄송함은 커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편지로 선생님께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1학년 때 저는 규율과 규칙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고 잘못을 하면 혼나는 반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규칙을 지키는 예절 바른 생활

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저는 그 때 혼나는 것이 무서워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처럼 모든 것을 겁내고 어려운 것들은 피하며 소심하게 생활했습니다. 그 상태로 2학년이 되어버린 저는 1학년 때와 다름없이 쪽 생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 저는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용기는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자신감도 떨어진 저를 선생님께서는 바꿔주셨습니다. 틀리는 것이 두려워 문제의 답을 알아도 답을 발표하지 않았던 저에게 틀리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 사람 앞에서만 서면 부끄러워했던 저에게 용기를 주시며, 저의 재능을 찾아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를 믿어주시며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기회들은 제가 부족했던 것들을 채워줬습니다. 물론 아직 남들의 시선이 꽤 두려웠던 그 당시의 저는 선생님께서 주신 기회들을 가끔씩 잡지 못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들이 떠오를 때마다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 큼니다. 지금의 저는 그 때로 돌아간다면 선생님께서 주셨던 기회를 모두 잡았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주신 것들은 모두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매번 실수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노력할 수 있는 용기, 모두 앞에서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자신감, 친구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리더십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믿음과 사랑이 아니었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게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 어쩌면 영원히 없었을 수도 있었던 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해나가고, 선생님께서 주신 믿음과 용기, 그리고 사랑을 지켜나가며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수요일
김미연 선생님의 2018학년도 제자 정지우 올림

정지우 | 서울 송덕초등학교 4학년 | 서울교육감상 수상작 ■

할아버지의 간절한 소원

To. 할아버지께

내정하게 교복을 입고 액자 속의 할아버지를 바라보자 환히 웃으면서 내 모습을 찬찬히 바라보고 계시는 나의 할아버지, 예전부터 원하셨던 교복 입은 저의 모습을 할아버지께서 꼭 하늘에서 보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어릴 때 엄마는 낮과 밤 상관없이 바쁘게 일하셔서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니 할아버지의 고마움을 알게 되었어요. 생각하면 따뜻한 봄날에는 할아버지 손을 꼭 잡고 집 앞 놀이터에 산책도 가고 들뜬 쪽에 무성하게 꽃이 핀 토끼풀로 양증맞은 반지와 팔찌를 만들어주시곤 하셨죠. 그 반지는 어린 나에게는 하루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부적과도 같았어요. 할아버지 혹시 기억하세요? 솔솔 바람이 풍기는 날에는 할아버지 굽은 등에 기대어 자전거를 타면서 힘차게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할아버지는 “하! 하! 하!” 웃으면서 힘차게 동네 한 바퀴를 돌곤 하셨죠. 그러다가 배가 고파지면 어김없이 제가 좋아하는 자장면을 사주셨지요. 항상 입가에 분칠한 것 마냥

양념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 입을 할아버지는 웃으면서 정성스레 닦아 주셨지요. 이따금씩 비가 내리면 함께 주판을 좌르륵 돌리기도 하며 뽀뽀 뽀 뽀 못난 글씨로 한글을 써내려가기도 했지요. 더운 여름이 되면, 할아버지의 작은 뒷밭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방울토마토도 따주시고, 난 물도 뿌리며 무성하게 자란 잡초들을 뽑기도 했지요. 하지만 벌레에 너무 많이 물려 온 몸이 붉게 혹이 나서 할아버지는 ‘호~ 호~’ 불어주며 약을 발라 주셨던 그 날들이 생생하게 기억나요. 할아버지와 추억이 하나 둘 쌓여 가며 어느덧 저는 중학교 입학 준비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의 병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험레벌떡 병실에 뛰어갔을 때 병실에는 각종 의약품 냄새가 넘치고 그곳에서 호흡기에 의존하여 간신히 숨을 내쉬는 할아버지가 누워 계셨죠. 저에게 늘 함박웃음을 지어주셨던 자상한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을 하고 계셨죠. 갑작스럽게 변한 할아버지의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아버지를 향하는 제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지는 것 같았고, 잔뜩 떨리는 목소리로 “할아버지...”

라고 부르자 살며시 뜬 할아버지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며 저의 손을 짝 잡으셨죠. 그러자 여태까지 꼭 참았던 눈물들이 와락 쏟아져 나왔어요. 울음을 그치지 못하자 엄마는 제 등을 토닥여주셨고 마음에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어떤 날은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 부모님 몰래 한 시간 가까이 버스를 타고 걸어가 할아버지를 뵈러간 적도 있지요. 그럼 할아버지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지언이 왔니”라고 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눈물을 꼭 꼭 참으며 할아버지께 웃음으로 대답을 했죠. 저 또한 이렇게 괴로운데 부모님은 어떤 심정일까요? 가게를 운영하면서 할아버지 병간호에 모든 힘을 쏟아계시고 엄마는 할아버지 드실 반찬을 만들며 온 가족들이 할아버지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었지요. 한 번씩 할아버지를 뵈러 병원에 다닐 때마다 손을 덜덜 떨며 뼈밖에 없는 마른 손을 잡아드리면 눈물만 흐르고 계셨던 할아버지. 예전에는 할아버지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잡는 것이 참 좋았는데... 가슴이 또다시 무너지는 것이 뭉클해집니다. 어린 저의 삶 속에서는 할아버지가 차지했던 부피는 어

마어마하게 컸지만 크면서 저의 삶 중 할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렇게 전 할아버지와 기억을 시간에게 도둑맞고 있었던 거예요. 할아버지 옆에 있으면 말이 많던 저조차도 금세 조용해져요. 어릴 때는 할아버지와 마주보고 얘기할 땐 종달새처럼 말이 줄줄 나왔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힘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말 안하고 있던 저를 보고 많이 섭섭하셨습니다. 병실에서 나오면 뒤늦은 후회를 하곤 했어요.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침대에 누워계신 할아버지를 보면 알 수 없는 감정이 마구 솟구쳤어요. ‘돌아가시는 건 아닐까?’, ‘다시는 못 일어나시는 건 아닐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없는 감정에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쏟아져 나왔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보낸 세월이 짧다고는 할 수 없어서일까요? 함께 보낸 세월이 너무 그리워서일까요? 할아버지의 얼굴만 보면 가슴 깊숙한 한 쪽이 아리고 쿵쿵 울려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할아버지의 병환이 깊어진다는 소식과 함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장례식장 안에서 할아버지는 환한 미

소만을 남겨주었지요. 그리고 보면 할아버지는 늘 이 말을 입에 담고 계셨지요. “우리 지언이 교복 입고 있는 모습 보고 죽어야할 텐데...” 하며 쓸쓸하게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어렴풋이 생각나 장례식 날 교복을 입고 들어가 영영 울면서 ‘사랑한다고 보고 싶다고 그림다고’ 소리쳤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슬픔이 제 심장이 찢기는 것 같았어요. 잊을 수 없는 깊숙한 기억 속, 그 장면은 지금도 생생히 기억할 수 있게 해준 할아버지의 잔잔한 미소가 너무나도 그리워요. 비록 지금은 안계시지만 제 마음 속에는 여전히 기억되고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께서는 토끼풀을 좋아하셨는지, 다리가 불편하셔서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니시는데 산책 나가는 것은 힘드시진 않았는지, 물어보고 싶은 말들이 산더미처럼 많았는데, 낯은 액자 속 우리 할아버지의 얼굴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말들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할아버지는 제게 또 다른 부모님이예요.” 이 말은 꼭!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덧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고등학교라는 두 번째 교복을 입고 저는 또 할아버지 앞에 서

있어요. 여리고 여렸던 어린 아이가 아니라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아이로 커버린 손녀 딸 많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언제나 보고 싶은 나의 그리운 할아버지.

지언 올림

여름이라 더운 겨울이라 춥다는 것을

To. 1학년 담임 이라금 선생님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좀 더 더워졌죠?

5년 전 선생님의 학생 진찬호입니다. 따뜻하였던 선생님과 입학 날이 생각나네요. 저보다 큰 의자에 앉아 책상에서 학교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 집은 한 끼를 제대로 때울 수도 없을 만큼 가난하였고 그래서 아버지는 출장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못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 하였을 때 선생님께서 공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공부는 사탕처럼 달콤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럽다고 하셨습니다. 그 에너지가 독서의 힘이 되었고 도서관에 있는 책을 읽으며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읽은 책은 그리 두껍지도 어려운 책도 아니었지만 선생님과 독서의 힘으로 지금의 활기찬 전교 회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형편에 덥고 춥게 살아가던 저에게 여름이라 더운 겨울이라 춥다는 것을 알려주신 선생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냥 신나는 아이였지만, 마음을 잘 다스려 감정을 나누라 하셔서 그때부터 감사하다는 따뜻한 말을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전하였지만 이젠 선생님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항상 고마움은 소박한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진찬호 올림

진찬호 | 구미 경북오태초등학교 6학년 | 경북교육감상 수상작 ■

이젠 제가 외할아버지의 튼튼한 두 다리가 되어드릴게요

To. 아빠의 자리를 대신해 준 외할아버지께

안녕하세요! 저 둘째 외손주 희웅이에요. 저에겐 외할아버지지만, 7살 때부터 “하부지” “하부지”라고 부르며, 쫓아다니던 때가 엇그제 같아요. 시골벽적하던 집을 떠나 진주로 온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 2학년이 되었는데, 가끔 집에 갈 때마다 할아버지의 두 다리가 너무 힘들어 보여요. 나무에서 떨어지셔서 고관절을 크게 다쳐 응급차에 실려 서울 병원으로 가실 때, 너무 놀라서 힘껏 두 손을 잡아드리지 못했던 게 지금도 죄송하고 후회돼요. 그래도 농사지으시느라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아빠의 빈자리를 때론 아빠의 몫까지 대신 해주시느라, 타 이르고 조언해 주시느라 어깨가 무거우셨는데, 그 커보였던 어깨도 많이 늙으셔서 초라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힘드셔도 형과 저 독립할 때까지 엄마를 도와 뒷바라지 해주신다고, 재 활도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시는 걸 보면, 감히 세상에서 가장 부 지런한 사람이란 말이 가장 어울려요. 할아버지께서 늘 강조하신 ‘역지사 지’는 기숙학교인 저희 학교에서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데, 룸메이트와 부

딛히는 일이 발생하면 나보다는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 었고, 대표로 친구들을 통솔할 때도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배웠어요.

할아버지께서 부족하고 가난한 환경에서도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꾸 짓어 주시고, 때론 치킨을 사주시며 오순도순 얘기해 주시던 게 그리워 요. 아버지없이 자란 저를 사춘기 때 나쁜 길로 나갈까봐 자주 꾸중하셨 는데, 그때 저는 할아버지 말씀이 듣기 싫고 짜증난다며 ‘꼰대’어른들의 말로 치부하며 문을 쿵 닫고 들어갔던 기억이 너무 부끄러워요. 형은 “보 석이” “보석이”라며 좋은 거, 맛있는 거, 많은 거 먼저 주는 것도 차별 아 닌 차별이라며 서운해 하고 서럽기도 했지만, 그 아픈 기억이 지금의 좀 더 강한 희웅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공부라도 열심히 해야 저를 인정해 주실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한 계 기가 되어서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던 생각도 해요. ‘옳은 길’의 반대는 ‘나쁜 길’이 아니라 ‘쉬운 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춘기 때 너무 쉬운 선택만 했다면 지금의 희웅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적당한 가시밭길

은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열심히 학교생활 잘해서 공군 부사관으로 임관해서 돈을 벌면 제가 받은 은혜 꼭 돌려드릴게요. 불편하신 두 다리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지만, 이젠 제가 든든한 두 다리가 되어 드릴게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제 곁에 계셔만 주세요.

저희 두 형제 졸업할 때까지 농사해서 뒷바라지 해 주신다며 아픈 다리를 이끌고 일하시고, 밤마다 파스에 의지하시는 걸 보면 이젠 농사 그만 신경 쓰시고 좀 편하게 쉬셨으면 해요. 곧 방학하면 가서 감자도 파고, 옥수수도 따고, 튼튼한 두 다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는 어두운 바다를 밝히는 제 삶의 등대이시고, 더울 때는 큰 아름드리나무에 그늘을 만들어주시고, 추울 때는 따뜻한 사랑을 주셔서 자라게 해주는 저에겐 나무 같은 존재였어요. 저의 꿈을 짝짝 뺨을 수 있도록 사랑과 격려로 보살펴주셔서 지금까지 바르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항상 보면 안아주시고, 어깨를 다독여주시는 외할아버지!!!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효도하도록 건강하게 늘 제 곁에

계셔 주세요. 사랑합니다, 하부지.

희웅을림

이희웅 |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학년 | 경남교육감상 수상작 ■

내게 소중한 것들을 안겨줬던 만큼,
이젠 내가 아빠에게
소중한 것들을 안겨줄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빠의 시간을 돌아가,
아빠가 내게 보여줬던
무한한 애정들을 안겨줄 거예요.



엄마는 나의
첫 번째 사랑거리

진주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2학년 권민영

나의 유일한 가족,
엄마

인천 논현고등학교 2학년 이정윤(가명)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제천 흥광초등학교 4학년 장현우

아버지의
생각과 헌신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6학년 안시훈

제가 아빠의 시간에
맞출게요

청주 충북여자고등학교 2학년 이지영(가명)

엄마는 나의 첫 번째 자랑거리

To.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효선 여사께

안녕하세요, 엄마. 저 엄마 딸 민영이에요! 제가 제일 감사해야 할 존재이지만 항상 그 감사함에 익숙하게, 그리고 당연한 듯이 살아왔어요. 생일 축하 편지나 결혼기념일 축하 편지는 써봤어도 감사 편지는 처음이라 조금 낯서네요. 며칠 전, 엄마 아빠께서 15년 전 사진을 보내주셨잖아요. 사진 속 엄마를 보고 지금 엄마를 보면 세월의 흔적이 많이 보여요. 엄마 인생에서 절반에 가까운 시간동안 저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2016년 9월, 생각하세요? 그때 저는 제 진로를 위해 중학교 자퇴를 결심했어요. 엄마는 저의 결정을 철부지 없는 14살의 막연한 생각이라고 여기시지 않고 제가 원하는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에 대해 같이 알아봐주시고, 저를 많이 존중해주셨어요. 열심히 할 수 있겠냐는 질문 하나만 던지시고 고민 끝에 자퇴를 도와주셨죠. 엄마도 이 학교에 검정고시를 통해 입학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런지 오히려 저를 더 이끌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던 저는 엄마가 고민이 많으시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직 중학교 1학년 밖에 되지 않은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다는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때 저는 제 꿈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주변의 우려도 많았던 결정이었는데 엄마 덕분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안 좋은 얘기들을 직접 듣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학교를 가지 않는 저를 위해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차려주시고 먹고 싶은 건 없냐고 물어봐주시고 춤지는 않니, 혹시 덤지는 않니, 몸은 괜찮니, 나가서 바람 쐬고 오는 건 어떨까 하시며 항상 걱정해주시고 저를 많이 도와주셨어요. 제가 집에서 공부를 할 때면 엄마께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전화를 하셔서 저랑 놀아주기도하시고 그러다 학원갈 때가 되면 태워주시고... 그때는 너무 당연하게 느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작은 몸 하나로 어떻게 버티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마께서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시는 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그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제 나이보다 조금 이르게 처음 학교 시험을 봤을 때 저는 실패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진짜 이 길을 선택하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는 마냥 응원하기보다 같이 현실적으로 꼼꼼이 고민해

주셨어요. 용기를 얻어 한 번 더 시도한 끝에 저는 지금 제가 원하던 학교의 기숙사에서 편지를 쓰는 중이에요. 다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이 학교에 합격하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을 때 엄마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민영아, 엄마가 조금 더 열심히 도왔더라면 네가 조금 더 멋있는 삶을 살았을까? 더 좋은 지역에 살고 더 좋은 학원에 다니게 해줬더라면 네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을까? 후회되네.” 엄마! 후회하실 필요 없어요. 그 누구의 엄마보다 아니 그 어떤 사람보다 엄마는 저에게 힘껏 쏟아 부어 주셨어요. 물론 조건이 조금 달랐더라면 제가 공부를 더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보다 더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2년의 시간동안 엄마는 저의 제일 나이 많은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때로는 또래와 비슷한 눈높이로 저와 재미있게 놀아주시고, 때로는 든든하게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이효선’이 제 엄마가 아니었다면 어땠는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엄마! 엄마는 흔하디흔한 엄마가 아니에요. 엄마 딸, 저 권민영의 첫 번째 자랑거리예요. 엄마 같은 엄마가 있다

는 거!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있지만 마음은 항상 엄마 옆에 있다는 거 아시죠? 주말에 엄마 뵈러 갈게요. 앞으로도 학교생활 열심히 바르고 건강하게 잘하는 딸이 될게요!! 제가 18살이 될 때까지 아낌없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밑에서 자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지금도 정말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할거예요. 저도 엄마를 꼭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From.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효선 여사의 딸 권민영 드림

나의 유일한 가족, 엄마

To.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저 정윤이에요. 작년과 같이 올해도 감사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매번 감사한 사람을 떠올리면 저는 엄마만 떠올라요. 철없던 제가 이제 철이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를 생각하는 제 마음이 요즘 그렇게 밝지만은 못해요. 요즘 저는 엄마를 뵈 때마다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겨요.

저 때문에 일주일 내내 남에게는 그저 쓰레기로 취급 받는 물건을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줍고, 밟는 등 한 손으로 이렇게 험한 일을 하시는 모습을 집 창문 너머로 바라 볼 때마다 엄마에게 매우 감사드리면서도 도와드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요.

또 엄마가 그 연약한 몸으로 리어카에 약 100kg라는 버거운 박스들을 한 손으로 끌고 가실 때마다 그 모습을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렸을 때 오히려 부끄럽다며 피했던 제 자신의 모습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단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던 말이 있어요. 엄마가 기억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제가 놀이터에서 한 오빠에게 놀림을 당하고 집에 와서 엄마를 껴안으며 울었던 날 기억하세요? 엄마가 저를 안아주시면서 왜 우냐고 물어보셨을 때 저는 그 오빠가 엄마 팔 하나밖에 없다고 놀려서 울었다고 말했죠.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렇게 말씀 해 주셨죠. “엄마 괜찮아. 지영이가 엄마를 자랑스럽게만 생각해 주면 엄마는 그 누가 엄마를 놀려도 전혀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지영이가 마음 아파하지 마.”

저는 그 어린 나이인 7살 때 이 말을 듣고 우리 엄마는 내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컸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점점 크면서 제 자신도 모르게 7살의 순수한 다짐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엄마를 부끄럽다고만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후에야 깨달았어요.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대단하고 존경스러운 거란 걸. 이 말을 정말 꼭 하고 싶었는데 하고 나니 후

련하면서도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엄마,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시니 심정이 어떠세요? 딸이 많이 컸다고 느껴지시나요? 엄마, 제가 말로 표현을 잘 안하지만 엄마에게 매우 미안해하면서도 항상 엄마가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리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엄마, 아프면 아프다고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엄마, 힘들면 힘들다고 꼭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받지만 않고 베풀 줄 아는 엄마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드릴게요. 저에게 유일한 가족은 엄마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서로 힘들어도 의지하고 도우면서 오래 건강하게 함께 살아요. 엄마, 제가 꼭 성공해서 힘들지 않게 해드릴게요. 또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엄마! 어제보다 더 내일보다 덜 사랑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엄마를 매우 사랑하는 정윤을림

이정윤(가명) | 인천 논현고등학교 2학년 | 인천교육감상 수상작 ■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To. 할머니, 할아버지께

할아버지, 할머니 안녕하세요? 두 분의 손자 현우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어지고야 자주 찾아볼 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의 건강이 더 많이 걱정되는 지금입니다.

이번 겨울방학 때 경주에 있는 석굴암에 가고 싶어 하는 저를 위해 경주여행을 함께 계획하고 바쁘신 아빠를 대신해 저와 동생을 데리고 경주 여행을 함께 해주셨던 것 감사합니다. 저는 석굴암 보존불상 이마에 박힌 보석을 멀리서나마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간 경주 월드에서는 바이킹을 타고는 너무 무서워서 바지에 오줌을 조금 썼는데 그런 저를 그럴 수 있다며 괜찮다고 꼭 안아주셔서 창피함과 무서움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저를 꼭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격려 덕분에 무서웠지만 다음에 또 타보고 싶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경주 여행 중 문무대왕릉 앞에서 경험한 첫 일출은 색이 너무 예쁘고 멋있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본 첫 일출을 평생 잊지

않고 기억하겠으며, 그런 멋진 광경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공적마스크를 사기 위해 몇 시간 씩 줄서서 마스크를 사 오신다는 엄마를 위해 할아버지, 할머니 마스크 안사시고 저희가 쓸 소형과 중형 마스크를 구입하여 우편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께서는 부자가 된 기분이고 이 마스크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모든 마음이 담겨있는 마스크라며 쓸 때마다 그 마음을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가고 싶으신 곳으로 여행도 함께 가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사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크도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꼭 한 번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감사편지를 쓰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동생들을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코로나
나 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From. 손자 장현우 올림

장현우 | 제천 흥광초등학교 4학년 | 충북교육감상 수상작 ■

아버지의 생각과 헌신

To. 제 마음 속에 생명 존중을 꽃피워 주신 아버지께.

아버지, 안녕하세요? 등교를 하며 풀밭을 걸으며 작은 생명들에게서 행복을 느끼다 보니 아버지가 떠오르네요. 이 모든 존중과 배려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 주셨음에도 그 감정을 가슴 속에만 간직하다 이 편지를 통해 감사를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명의 소중함을 잘 몰랐습니다. 밤에 물총을 들고 고양이들을 괴롭히기도 했고, 죄 없는 개미들을 짓밟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인간 이외의 타 동물들을 하찮게 여기던 제가 아버지 덕분에 모든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시 그리며 생각해 보겠습니다. 때는 1학년, 생각이란 것이 머릿속에서 자라날 즈음이었습니다. 옆 동네의 길냥이 가족이 우리 아파트의 상가 옥상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단순히 새끼 고양이들이 귀여워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역시 그들을 찾아가 사료를 주고, 놀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도 저처럼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고양이들을 돌보아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구내염에 걸려 침을 흘리고 털이 헝클어져 있는 고양이에게도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고양이들을 멀리 퍼뜨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행동에서는 사람과 다른 생물들의 공존을 추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그 모든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함께 해주시는 것에서 저에 대한 걱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이제 생명 하나하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저는 생명을 경시하고 자신밖에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이기주의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의 노력, 마음,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동등한 무게를 보여주시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보여주신 아버지, 제가 생명을 아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며 편지를 쓸 만큼 생명에 대한 생각과 마음이 풍부한 사람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 덕분에 길냥이를 보면 타 동물과 인간의 벽을 허물며 연대할 수 있고, 죽어가는 생명이 있으면 나의 일

부가 떨어지는 것처럼 슬퍼할 수 있습니다. 이 다채로운 감정들과 존중은 모두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한 고양이 가족에 대한 존중이 저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게 모두 아버지의 생각과 헌신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해주신 그 마음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이어 나가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From. 안시훈 올림

안시훈 | 평택 소사벌초등학교 6학년 | 경기교육감상 수상작 ■

제가 아빠의 시간에 맞출게요

To. 사랑하는 정표 씨께

정표 씨, 안녕하세요. 막내 딸 지영이에요. 매번 쑥스러워 하지 못했던 말을 <감사편지쓰기> 공모전을 핑계 삼아 해보려고 해요. 아빠, 나는 아직도 그 밤을 잊지 못해요. 짙은 새벽에 마주앉아, 아빠가 처음으로 제게 힘들다며 속마음을 털어냈던 밤. 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해야 한다던 말이, 그 말을 하던 아빠의 표정이 자꾸 귓가에, 눈앞에 아른거려요. 나는 잊잖아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빠가 가라앉은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날 내가 평평 울었던 건, 아빠 대신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다시 멀쩡해져야 할 아빠를 위해서였어요. 음... 내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제일 먼저 아빠가 떠올라요. 어렸을 때 많이 아팠고, 다쳤었잖아요. 화상을 입어 두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을 때, 날 매일 안아서 이동하던, 병원에 데려가 주던 아빠가 떠오르고, 열병에 시달릴 때마다 물수건 갈아가며 절 간호 해줬던 아빠를 기억해요. 지금도 주기적으로 건강검진 받으러갈 때, 항상 같이 가주던 모습까지도요. 이렇게 적고 보니, 나 아빠한테 받은 게 너무 많네요. 아빠, 내게 이런 사랑을 쏟아줘서 고마워요. 무한한 애정을 담

아줘서 고마워요. 아주 많이. 아빠, 아빠는 기억나요? 내가 며칠 생일편지 써달라고 졸랐을 때, 아빠 반응보고 사실 기대 안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책상 위에 편지 놓여있는 거 보고 사실 많이 울컥했어요... 그 흔한 편지지가 아니라 A4 용지에 써준 그 편지가 아빠를 닮아 투박해서 이렇게 나에게 애정을 담아주는 게 많이 고마워서. 그리고 아빠가 편지에 그랬잖아요, 지원 많이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울컥하고 미안하고, 고마운 감정들이 합쳐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눈물이 흐르는 거. 딱 내가 그랬어요. 아빠가 그 말을 쓰기까지 얼마나 곱씹었을지 느껴져서, 그냥 아빠의 진심이 너무 잘 느껴져서 ...에 담긴 아빠의 공백이 너무 속상해서 그래서 그 편지를 평평 울면서 읽었어요. 아빠, 아빠는 전혀 몰랐겠지만, 나는 그 편지를 파일에 끼워놔요. 항상 어떤 편지든 접어서 편지함에 보관하던 제가 그 편지 하나만큼은 접히지 않게. 설령 편지가 닳아버릴까 두려워 매일 눈에 담아놓기만 해요. 읽을 때마다 매번 눈물이 흐르는 편지지만, 그만큼 많이 소중한니까요. 투박한 편지

도, 그 안에 담긴 아빠의 진심도. 그러니까 내게 미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편지처럼 내게 소중한 것들을 안겨주는 것도 아빠고, 많은 지원은 못 해줄지라도 바쁜 시간 쪼개서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도 아빠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아요. 난 이미 충분해. 아빠. 나는 아빠가 내게 했던 말들을 기억하고, 아빠가 나를 위해 애썼던 순간들을 기억해요. 아빠의 시간을 내게 맞추던 그 순간까지도요. 근데 이젠 저를 위해 애쓰지도, 아빠의 시간을 제게 맞추지 않아도 돼요. 지금부터 제가 아빠의 시간에 맞출게요. 저를 위해 애썼던 그 순간들을 이젠 제가 돌아갈게요. 그렇게 이젠 제가 아빠를 위해 애써볼게요. 내게 소중한 것들을 안겨줬던 만큼, 이젠 내가 아빠에게 소중한 것들을 안겨줄게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아빠의 시간을 돌아가, 아빠가 내게 보여줬던 무한한 애정들을 안겨줄 거예요. 그러니 아프지 말고, 천천히 늙어 가주세요. 아빠의 시간이 더디게 흐르도록, 조금만 늦춰주세요. 그럼 나는 그 더딘 시간 속, 아빠라는 이름으로 바쳐왔을 청춘을, 애써왔을 노력들을 안아줄게요. 울

던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아빠처럼, 이젠 제가 홀로 애써왔을 아빠에게 버팀목이 되어 줄게요. 더디게 흐를 그 시간들을 제가 함께 할 테니, 내가 뻗은 손을 잡아주세요. 되게 횡설수설 썼지만, 제 진심이 잘 전달되었길 바라요. 아빠가 내게 사랑한다고 말해왔든, 나 역시도 아빠를 사랑한다는 거. 씩스러운데, 정표 씨~ 사랑하는 정표 씨~!! 제가 많이 사랑해요. 이젠 그 더딘 시간 함께 걸어가요. 애정해요, 사랑해 아빠.

From. 정표 씨를 사랑하는 막내 딸 드림

넌 항상 나보다 뛰어났고
그만큼 부러운 것도 많았기에
가끔은 쓸데없는 질투심으로
우리 사이를 절벽에 밀어넣으려
했던 적도 있었어.

그때마다 항상 넌 내 곁을
외로운 도로 틈새
민들레를 보는 가로등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서 주었지.

나의 7년지기 친구

울산 천상중학교 1학년 이래경

선의를 베푸는 따뜻한 사람

대구 신격초등학교 6학년 한준

나는 매일 11시부터 행복을 느껴

청주 산성초등학교 1학년 차윤서

엄마는 나의 영웅이자 슈퍼히어로

광주 마지초등학교 4학년 강다윤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세종 도담고등학교 1학년 오시현



나의 7년지기 친구

To. 사랑하는 내 7년지기 친구에게

친구야 안녕? 나 네 7년 친구 이래경이야... 어떻게 지내? 아마 넌 햇살 같이 맑고 따스한 예쁜 웃음을 짓고 있겠지? 오늘 난 네 생일선물 카드도, 새해맞이 덕담 메시지도 아닌 오롯이 널 위한 고마운 마음을 이 편지에 담아 보기로 했어.

사실, 그동안 우리의 어렸던 모습들, 지금 어엿한 중학생이 된 모습들 사이에 선 날이 되니 문득 급성 백혈병으로 홀로 병원에 가 있는 네 모습이 언뜻 스쳐지나가더라고. 넌 항상 나보다 뛰어났고 그만큼 부러운 것도 많았기에 가끔은 쓸데없는 질투심으로 우리 사이를 질벽에 밀어넣으려 했던 적도 있었어. 그때마다 항상 넌 내 곁을 외로운 도로 틈새에 핀 민들레를 보는 가로등처럼,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 서 주었지. 그때마다 얼마나 고맙고 미안하던지. 그리고 보니 난 항상 네 도움만 받고 정작 네가 힘들고 지쳤을 때 네가 날 이끌어줬던 것처럼 도와주지 못했더라. 괜히 어린 마음에 널 시기질투하던 지난날의 내가 너무도 한심하고 원망스러운 거야. 그래서 지난날의 어리석던 내 모습을 네게 용서받고자 전보다 네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맙다. 사랑한다. 그런 어찌면 낮간지러울 말들을 네게 가끔씩이나마 건네주게 되었던 거야.

친구야, 넌 내가 한동안 심리적으로 고통스러워했던 날들마저 곳곳하게 내게 손을 내밀어주었고 내가 그 손을 밀어낼지언정 그럴 때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손잡이와도 같은 원동력이 되어주었다. 덕분에 난 심리치료를 끝까지 잘 받아내고 네게 진심으로 웃어줄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었어. 이젠 내가 널 안아줄게. 네게 힘이 되어줄게.

아마도 넌, 얼마 전부터 날마다 연락이 오던 내가 아주 의아했겠지? 그 무뚝뚝하고 가끔은 속 하나 보여주지 않아 애먹었을 나에게 날마다 전화를 받다니 말이야. 넌 조금 혼란스럽고 의아했을지 몰라도, 그동안 든든한 내 버팀목이자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줬던 널 위한 조그만 내 고마움의 표현이었어. 그리고 어찌면 너무나도 외롭게 홀로 병과 싸울 네가 걱정스럽기도 했었기 때문이란단다.

친구야, 이제 나 힘들지 않아. 항상 나를 배려해주고, 슬픔에 잠식되어

허우적덜 때도 ‘재 왜 저러지?’라는 생각보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부터 가져줘서 고마워. 다른 아이들과 어른들과 달리 날 색 안경을 끼고 바라봐주지 않아서 더 고마워. 나의 가족 같은, 둘도 없는 나의 예쁜 친구가 너라서 난 너무나도 행복하단다. 비록 지금은 당장 마주할 수 없는 네 얼굴이지만, 나는 날마다 너와 함께한 사진들을 들춰보며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띄고는 한단다. 너와 떨어져 있는 나지만 항상 너와의 추억과 수화기 너머로나마 네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 참 기뻐.

친구야, 힘들 때 내가 묵묵하게 옆을 지켜줄게. 네가 호젓함을 느끼지 않도록 네 옆을 지키고 서 있는 멋진 친구가 되어줄게. 꼭 약속해.

3년 뒤, 너의 병이 다 낫고 나면 우리 함께 꼭 강가에 놀러가자. 함께 돌탑도 쌓고, 물수제비도 뜨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더욱 예쁘고 성장한 우리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자. 먼 노을 보듯, 그렇게 손잡고 함께 행복하기로 해.

친구야, 나의 7년지기 친구야. 사랑하고 내 옆에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

마워. 꼭 함께 이겨내자. 사랑해. 친구야

너의 소울메이트 이래경 씬

이래경 | 울산 천상중학교 1학년 | 울산교육감상 수상작 ■

선의를 베푸는 따뜻한 사람

To. 따뜻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산격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6학년 한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구호키트를 받았습니다. 구호키트를 받기 전까지 반복되는 하루에 지쳐 맥없이 살고 있었는데, 대구지원단, 대구시청, 대구북구청, 사랑의 열매, 초록우산, 삼성생명, 신한금융희망재단, 북구협의회 등등 담당자들의 따뜻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마스크와 값 비싸서 평소에는 못 먹는 맛있는 음식과 건강에 좋은 비타민, 면역력을 높여주는 달콤하고 맛있는 과일을 가족들과 즐겁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께서 할머니와 함께 작은 가게를 하십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경제 침체로 힘든 상황에 코로나19까지 겹쳐 장사가 잘되지 않아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해 저희 가족 말고 다른 많은 가족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구호키트를 받아서 우리 가족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저희는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많은 후원자님들이 계셔서 이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잘 버텨 이

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해 전국에서 달려와 주신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등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의 마음에 크게 감동 받았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모여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중 구호물품을 전달해주시고 제가 잘 있는지 안부도 물어주시는 등 뒤에서 항상 도움을 주시고 노력해주시는 산격지역아동센터의 센터장님과 복지사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코로나19가 끝나기를 기원하며 저도 코로나19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예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받은 많은 후원물품들과 따뜻한 마음에 대한 보답으로 저도 어려울 때 기꺼이 남들을 도와주고 선의를 베푸는 따뜻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준 올림

한준 | 대구 산격초등학교 6학년 | 대구교육감상 수상작 ■

나는 매일 11시부터 행복을 느껴

To. 행복을 알게 해준 고마운 이모에게

이모~ 이모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까지 한 번도 못했는데 이 공모전을 통해 감사한 내 마음을 이모에게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 설레며 연필을 들어^^ 이모는 서울에 살고 이모부는 청주에 살아서 주말마다 이모가 청주로 왔었잖아~ 근데 작년부터 이모 뱃속에 아기가 세상에 빛을 볼 때가 되었다고 이모가 청주로 오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몰라~ 왜냐하면 나랑 윤환이는 엄마랑 아빠가 회사 끝나고 우리 어린이집에 올 수 있어서 매일 꼴찌로 집에 갈 수 있었거든~ 근데 이모가 매일같이 일찍 데리러 어린이집에 와줘서 꼴지가 아니어서 기뻐어^^ 꼴찌탈출! 그 날을 아직도 기억해~ 이모가 배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 날이 아기, 서진이가 태어난 날이었지. 엄마 말씀으로는, 이모가 3년 전에 주말 부부가 힘들어서 첫 번째 아기도 많이 아파 하늘나라로 보낸 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어린이집에 데리러 와주고 저녁까지 늘 배가 고팠는데 간식도 챙겨주고... 말은 못했지만 너무 감사했어. 어린이집 졸업하고 코로나19로 두 달 넘게 학교 못 갔

잖아~ 만약 이모가 없었더라면 내가 컴퓨터를 못해서 엄마, 아빠 회사 끝나고 오시면 밤늦게 겨우 온라인 수업을 했을 거고 다음 날 회사야 하는데 나 때문에 엄마, 아빠도 고생할 뻔 했는데 이모가 옆에 있어서 얼마나 든든했는지 몰라~ 온라인 수업 들었을 때도 이모가 많이 알려줘서 좋았어^^ 나는 외삼촌이랑 외숙모가 없어서 빨리 지나가는 동영상으로 수업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모가 따로 그림으로 설명해줘서 겨우 이해할 수 있었고~ 참! 어린왕자 같이 본 거 기억나? 어린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영혼이라고 미리 이야기해줬잖아~ 이모 말에 더 집중해서 그런지 이 동화가 얼마나 아름다운 동화인지 느낄 수 있었어. 다른 별에서 온 어린왕자의 순수한 시선으로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은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나도 이모처럼 어린 왕자가 참 좋아^^ 다음에 꼭 책으로 읽어볼게^^ 이모~ 내일도 어김없이 나를 데리러 아기를 업고 12시에 학교 앞으로 오겠지? 사막여우가 말한 것처럼, 이모가 12시에 온다면 나는 11시부터 행복해질거야~^^ 이모가 옆에 있어서 나는 매일 11시부터 행

복을 느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행복이 저 앞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는 희망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놀 때도 열심히 놀게! 내일 만나~

From. 이모의 예쁜 조카, 윤서 올림

차윤서 | 청주 산성초등학교 1학년 | 충북교육감상 수상작 ■

엄마는 나의 영웅이자 슈퍼히어로

To. 나의 슈퍼 HERO 엄마에게

안녕하세요? 엄마 딸 저 다윤이에요. 아파트 화단에 예쁘게 피었던 꽃들이 올해는 정말 유난히 소중하고 더 아름답게 느껴져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러나게 해줄 희망처럼 보였는데 벌써 봄이 지나 어느새 여름으로 발디딜 겨를도 없이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알미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도 우리 곁에서 지독하게 맴돌며 숨바꼭질을 하고 있네요. 엄마~ 코로나 19로 요즘 평소에 지나친 일상들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소중했던가 요즘 깨닫게 해줘요. 모든 일상들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일상이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을 수 있는 건 묵묵히 각자의 맡은 일을 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덕분이라는 걸 요즘 깊이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우리 집에서 묵묵히 동생과 나를 지켜주는 엄마에 대한 감사함과 고마움이 더 크게 느껴지는 날이네요. 개학이 장기적으로 연기되어 온라인 수업을 하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니 삼시세끼와 간식을 챙겨주시며 우리 곁을 지켜주시는 엄마... 늘 한결같이 고마운데 집에서는 못 다한 말 이렇게 편지로 써내려가요. 몇 일전 동생과 싸우고 공부도 하지 않고

핸드폰과 게임을 쥐고 사는 나에게 화를 내셨는데 그때 말대꾸하고 짜증내서 엄마 너무 죄송해요. 외할머니께서 저번에 이야기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긴 시간동안 너희들을 갖으려고 너희 엄마 마음고생하며 병원 다니며 힘든 주사 맞고 너희들을 10년이라는 긴 기다린 고생 끝에 너희들이 태어나게 된 거니 효도해야한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낳기 위해 긴 병원 생활과 아픈 주사를 맞으며 오랜 기다림 속에 동생과 나 쌍둥이 임신 소식을 듣고 엄마가 병원 앞에서 평평 울었다고 하시는데 내 마음이 아프고 엄마에게 더욱 미안했어요. 그렇게 힘들고 귀하게 찾아온 우리를 지금의 자리까지 예쁘게 잘 키워주신 엄마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고마운데 짜증까지 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엄마는 나의 영웅이자 슈퍼히어로예요. 올백머리 근육 뽕뽕 슈퍼맨~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 원더우먼... 책에서 나오는 히어로들은 많지만 우리를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지켜주는 언제나 다른 히어로보다 더 멋진 건 엄마라는 건 아시죠? 나의 영원한 히어로! 저는 엄마가 자

랑스러워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은 엄마예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감사드리고 투정부리고 짜증내고 화내도 받아주시고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앞으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이랑 싸우지 않고 사이 좋게 지낼게요. 제가 지금 어리지만 부모님께 도움을 더 받아야 하지만 좀 더 커서 엄마가 해주신 만큼 더 효도할게요. 세상 사람들은 산타할아버지가 없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 속에 계세요. 어릴 적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산타할아버지의 추억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나도 이 다음에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겠죠? 그 아이에게 나도 멋진 추억을 만들어 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저에게 그랬던 것 처럼요. 엄마~ 요즘 놀러 나갈 순 없지만 좋은 날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 속에서 느껴지는 사소하지만 반짝거리는 순간들이 더 소중한거든요. 코로나19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 함께하는 시간 추억 많이 만들어 가면 좋겠어요. 앞으로 자랑스럽고 든든한 엄마 딸 될

게요. 엄마~ 아빠~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From. 사랑하는 딸 다윤 올림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To. 내가 누구보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시현이에요.

오랜만에 이렇게 편지를 쓰려니까 조금 어색하고 부끄럽기는 한데 그래도 진심을 담아서 써봐요.

사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엄마께서 항상 제 옆에 계시면서 늘 저를 챙겨 주셔서 엄마가 제 곁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졌어요.

그런데 지난 겨울, 할아버지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엄마가 몇 달을 내 병원에 계시야 하는 상황이 생겼었잖아요. 저는 그때 엄마의 빈자리를 정말 너무 크게 느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 밥 먹으라고 외치는 엄마의 그 소리가 없으니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학원에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잘 다녀왔니?”라고 말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마음이 너무 허전했어요. 그제서야 ‘아, 엄마는 내 일상의 정말 많은 부분들을 뒷받침 해주고 계셨구나.’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엄마의 소중함이 온 몸으로 느껴졌어요.

나중에 아빠께서 말씀하시길, 엄마는 병원에 계시는 동안 병실 침대 옆에 있는 조그마한 간이침대에서 다리도 제대로 못 뻗고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면서 내내 할아버지를 간호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와중에도 엄마는 매일 저에게 전화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사소한거지만 엄마께서 매일 저에게 자기 전에 전화를 걸어서 “오늘은 무슨 일 있었어?”하고 물어봐주는 그때가, 그 겨울동안 저에겐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계시지 않는 동안, 아빠께서도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하루 종일 회사 일을 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도 매일 저녁에 집에 들어 오시면 늘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하시며 맛있는 밥을 해주시고 집안일까지 하셨던 아빠께 정말 감사해요. 엄마랑 아빠가 많이 고생하신만큼 할아버지의 건강도 완쾌하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할아버지께서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아빠 차를 타고 가던 그 때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갈 길이 멀어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때 할아버지께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웃고 계신 꿈을 꾸었어요. 할아버지께서는 건강한 얼굴로 우리 가족 앞에 서서 환하게 웃으시더니 해가 지는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멀어져가는 할아버지를 잡으려 했지만 도저히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눈을 떴는데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 엄마는 울고 계셨어요.

할아버지께서 끝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를 어떻게든 위로해드리고 싶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엄마께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아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멀리서 엄마를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평소엔 누구보다 강해보였던 우리 엄마, 내가 무척이나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나까지 눈물이 흘렀어요. 그렇게도 강인해보였던 엄마도 결국엔 누군가의 딸이었고, 지금껏 가족들을 위해 힘듦을 참고

강한 척 하고 계셨다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엄마의 모습에선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걸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의 눈물을 보니 평소 엄마께 툭하면 짜증내고 화내고 매번 엄마 속을 썩이기만 하는 제 모습들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후 언젠가 엄마가 내 곁에 계시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때 후회하기엔 너무 늦었을 거라는 생각.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느덧 주름이 많아진 엄마의 입가를 보았어요.

엄마의 얼굴에 언제 이렇게 주름이 많이 생겼지, 싶으면서 저는 그동안 엄마가 저를 위해 얼마나 애써주시는지, 고생하시는지 너무나도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나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엄마께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왔어요. 지난 16년간 날 위해 애쓰신 엄마의 수많은 노력과 헌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그저 엄마께 너무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 후회가 남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엄마께 잘해드려야 겠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조금이라도 덜 후회할 수 있도록이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눈물이 많아지신 우리 엄마. 요즘 들어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신 엄마의 모습이 자주 보여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코로나 중에도 몇 달 동안 병실에서 할아버지와 함께 하며 최선을 다 하셨던 엄마를 보며 모두들 대단하다고 하는데 엄마는 그래도 더 잘해드리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시니까 제가 더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엄마! 엄마는 분명 좋은 딸이었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엄마가 많이 웃으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노력할게요. 이번에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저렇게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엄마, 저도 아빠, 엄마께 최고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할게요.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우리 엄마, 전 엄마의 딸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해요. 엄마, 항상 감사하고 사랑해요.

엄마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첫째 딸 시현 올림

오시현 | 세종 도담고등학교 1학년 | 세종교육감상 수상작 ■

친구에게 놀림을 받고 펑펑 울며 돌아온 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면서

친구의 말과 상관없이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었던 당신의 따스함과,
저에게 내민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꼈던 그 달콤한 감촉의 기억을

제 마음속 보물 상자에 고이 넣어두고
삶이 힘들 때마다 꺼내 보며
희망과 원동력을 얻습니다.



김주원의 어머니,
선희씨

부산 삼정고등학교 2학년 김주원

소나무
그늘

전남 영광고등학교 3학년 백가은

든든한 지원자,
아빠

정읍 강호항공고등학교 2학년 유민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철원 동송초등학교 6학년 함현지

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제주 아라초등학교 4학년 부혜주

김주원의 어머니, 선희씨

To. 내 인생의 영감이자 원천인 그녀. 선희씨께

부모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함을 전하는 어버이날. 어쩌면 저와 선희씨의 인연이 탄생했음을 축하하는, 우리의 또 다른 생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늘을 맞아 당신에게 편지를 씁니다.

제가 세상에 나타난 이후, 당신은 온전한 이름보다는 ‘김주원의 어머니’로 많이 불리웠을 것입니다. 늘 중심을 잡고 있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 쏟아 부은 노력들과,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개인적인 슬픔과 아픔이 있어도 드러내지 못하고 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려야만 했던 나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저는 감히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신과 함께하는 이번 생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피와 눈물들이 헛되지 않도록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에게 놀림을 받고 평평 울며 돌아온 날, 눈물을 닦아주고 안아주면서 친구의 말과 상관없이 내가 소중한 사람임을 깨닫게 해주었던 당신의 파스함과, 눈물을 그친 후 저에게 내민 딸기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느꼈던 그 달콤한 감촉의 기억을 저는 아직까지 제

마음속 보물 상자에 고이 넣어두고 삶이 힘들 때마다 꺼내보며 희망과 원동력을 얻습니다.

선희씨, 당신은 이름처럼 참 선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은혜 하나도 잊지 않고 늘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고 양보하며 그것에서 기쁨과 인생의 가치를 찾던 당신의 모습은 저의 생애를 일궈내며 선한 힘을 발휘하였고 그 덕분에 저는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평생토록 기억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자’라는 가치관을 정립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바람직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인생이라는 한 폭의 작품을 그리는 작가에 비유한다면, 당신은 제가 더 뜻 깊고 의미있는 인생을 그리고 싶게 만드는 ‘영감’이자 ‘원천’입니다.

어머니가 처음이기에 서투르고 실수해서 미안하다는 당신, 이 말에 대해 저는 “이만하면 정말 잘한 것이다.”라고 답 해주고 싶습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당신은 더 위대하고 지혜로웠으며 그대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디. 당신과의 인연을 하나의 우연한 만남으로 본다면

그대는 제 인생의 귀인이며 저는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하고 그
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나, 사람 대 사람으로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희씨, 오늘따라 저는 우리가 상쾌한 새벽 공기
를 맡기 위해 손잡고 함께 산책을 나섰던, 언젠지 모를 그 때가 떠오릅니
다. 한 손에는 바나나 우유를 쥐고 도란도란 자신의 옛 추억들을 이야기
하며 웃는 당신의 얼굴이 그날따라 유독 푸르렀던 하늘과 어우러져 저는
마치 한 폭의 수채화를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아름다
운 당신의 미소를 보기 위해 자식으로서 많은 기쁨을 드리고 싶으며, 꼭
그렇게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봄과 여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포근한 날씨 속에서
2020.5.8. 주원 올림

김주원 | 부산 삼정고등학교 2학년 | 부산교육감상 수상작 ■

소나무 그늘

할머니께

할머니! 할머니 눈엔 제가 어떤 손녀인지 궁금해요. 할머니 인생에 제가 가시가 아니라 소나무가 되고 싶어요. 저를 엄마대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자신보다도 더 챙겨주시는 할머니를 원망했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크다보니 사람 한명 키우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할머니께서 항상 저에게 ‘동생한테 모범이 돼야한다, 엄마역할까지 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이유도 제대로 모른 채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할머니께서 위독하셨을 때 병원에서 간호해드리고 집 가서는 할머니 역할까지 해보면서 한 사람의 자리가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어요. 기억을 못하시겠지만 간호해드리면서 저녁에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다리랑 손도 계속 주물러드렸어요. 병원에서 간호하며 자리를 지키는 게 얼마나 힘들고 감정소모가 컸는지 제 몸에도 이상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집에서 요리할 때도 할머니 요리를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할머니의 밥맛과 비슷하게 하려하다보니 ‘역시 저는 할머니 손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할머니는 항상 저희들에게 좋은 옷만 입히려하셨지 정

작 할머니 자신에게 신경을 못 쓰시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슬리퍼를 계속 신으셔서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슬리퍼가 단지 편하셔서 그럴까 생각하며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신발을 사드렸더니 슬리퍼를 의지적으로 신은 게 아니라 “신발도 없이 슬리퍼만 무진장 신고 다녔네”라 하셔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해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꽃 핀 곳에 할머니를 모시고 가서 처음으로 그렇게 구경도 하고 추억을 남긴 거였어요. 저번에 저랑 같이 눈물 흘려 이야기를 나눌 때 제 가슴에 담겨있던 진심들이 할머니와 통한 것 같았어서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날이 된 것 같아 좋았어요. 언제나 제 걱정을 해주시고 자신은 이제 ‘내려가는 내림길 인생’이란 말씀은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도 다시 아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포지효’와 같이 이제는 제가 할머니 걱정 덜어드리고 언제나 굳건하고 단단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소나무로 여겨주세요. 이제 시를 지어 편지를 마무리할까 해요. “소나무 그늘 - 그대의 그늘에서 나와 그대의 그늘이 되고 싶소/365

일 항상 똑같이 있는 소나무 그늘로 하겠소/그대가 어디에 있든 이젠 그
늘에서 편히 계시오/그대의 지지대가 되고 싶소/그러니 모든 걱정 내려
놓고 나의 그늘에서/그대의 삶을 피워보시오” 제가 쓴 이 자작시처럼 할
머니의 오른팔이 되고 싶어요. 언제나 행복하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가! 할머니의 하나뿐인 손녀가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진심을 나타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할게요. 365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사랑합니다!!

백가은 | 전남 영광고등학교 3학년 | 전남교육감상 수상작 ■

든든한 지원자, 아빠

To. 존재만으로 빛나는 우리 아빠

아빠, 이 편지는 그동안 적었던 편지들이랑은 좀 다른 편지예요. 이 편지는 지금껏 써왔던 편지와는 다르게 언제일지 모르는 훗날, 아빠를 더 이상 볼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아빠를 생각하면 떠오를 것 같은 것들로 채워 적을 거예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아빠와의 추억을 생각하면 머릿 속에 숨바꼭질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5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시간들이었겠지만 아빠가 퇴근하고 올 7시쯤만 되면 신이 나서 작은 집 곳곳에 작은 몸을 숨기고 계속 숨어 있다가 찾아내면 아빠 품에 꼭 안겼던 그 기억이 따뜻하고 포근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저녁을 먹고 나면 맨날 언니랑 같이 근처 공원 가서 운동도 하고 놀이터도 가서 놀기도 하고, 주말마다 도서관에 있는 우리를 데리러 오고, 그때는 아빠가 그렇게 시간을 우리를 위해서 써주는 게 하루의 일과처럼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시간의 의미들을 서서히 깨달아요.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와서 얼마 안 되는 아빠만의 시간을,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을 몇 년 동안 그 시간들을 오로지 우리에게 쓴 거잖아요. 당연히 아빠랑 함께 보내

는 시간인 줄 알았던 그 시간들은 당연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어른이 된 민서가 어린 시절을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좋은 추억 하나라도 만들어 준다고 여기저기 같이 가주고, 시간 보내줬는데 그 시간들의 중심은 항상 저였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잠시 동안 15분 거리를 굳이 아빠랑 한 시간 정도 산타고 등교하고 다닌 거, 늦여름 때 계곡 가고 싶어 하니깐 망설임 없이 바로 계곡으로 가준 것 등등 소소하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들이 엄청 많아요. 아빠가 추억 만들어준다고 노력한 것들 아빠 노력 헛되지 않게 모두 다 행복한 기억들로 제대로 한 칸에 자리 잡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아빠를 보면서 자주 생각한 것은 내가 앞으로 살면서 누구한테라도 이렇게 까지 사랑받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평생 동안 받을 예쁨 지금 아빠한테 다 받고 있는 거 같아요. 아빠만큼 저의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 모두 사랑스럽게 봐주는 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다고 표현을 아끼지 않고 해주고, 정말로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토끼가 아빠 딸이라서 행복해”라고 한 것처럼 저도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민서 아빠여서 정말로 행복해요. 우리 아빠가 그 세상 어떤 아빠보다 멋진 사람이란 걸 확신해요.

아빠가 살아온 삶과 살아가고 있는 삶을 보면 배울 점이 많아요.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일하는 모습도. 끊임없이 무언갈 배우고 공부해서 삶에서 실천하려는 모습들도, 혼자만이 잘 사는 것이 아닌 소외된 사람들도 바라봐야한다며 그 사람들을 도우며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도, 정말로 느끼는 점이 많아요. 직업은 단순히 생계유지를 위해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빠가 일에 대해 사명을 갖고 일을 하면서 몇 십 년을 넘게 한 일을 재미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제가 가지고 싶은 직업에 대해서 다른 마음가짐과 작은 사명이 생겼어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아빠가 말해준 것들 잊지 않고 임할게요.

앞으로 살면서 중요하고 힘든 결정들을 많이 하겠죠? 아직 겪지 않은

일도 많지 않고, 앞으로 겪을 일들은 훨씬 더 많을 거고, 그때마다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건 저겠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누구보다도 든든한 지원자인 아빠가 있을테니 걱정은 덜 돼요. 그 동안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도저히 혼자서의 힘으론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로 아빠가 있어서 든든했어요. 내 생각과 가치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우리 아빠, 언제나 위로 받고, 배워가요.

이번 편지를 이렇게 적어야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존재만으로 빛나는’이란 책을 봤어요. 나이가 지긋한 어르신들에게 이번 생 가운데 시간을 돌리고 싶은 때가 언제인 지를 여쭙면 비슷하게 답하시는 것이 하나 있대요. “우리 부모님 살아계실 때로 돌아가 보고 싶어, 제일 그립지, 우리 부모님, 그때는 몰랐어. 살아계신 모습 딱 한 번만 더 보고 싶어. 그냥 보고 싶어. 그냥 그것뿐이야.” 그때가 되어서 비로소 알게 되는 존재 자체의 감사. 함께하는 시간의 기적이라는데 내가 철들 때까지 시간이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지금까지 같이 보낸 모든 시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편지를 읽고
있을 아빠의 시간들을, 앞으로 같이 보낼 모든 시간까지 그저 옆에 있어
준 것 자체로 엄청나게 큰 소중한 시간들이예요.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
도 아빠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진심으로 사랑해요.

From. 아빠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는 둘째 딸, 민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TO. 사랑하는 엄마에게♥

엄마 안녕. 나 현지야 어제 일이 너무 미안해서 편지로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거 같아서..엄마 어제 많이 속상했지.. 미안. 내가 어제 아침은 정말로 잘못된 거 같아. 나도 모르게 화가 나더라고 내가 지금 사춘기 시기이기 때문에 엄마가 참고 있는 거 알아. 엄마 출근 준비도 만만치 않은데 우리 세 명을 깨우는 데 힘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우리가 한 번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깨우면 우리가 화내고.. 엄마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 그리고 더 속 썩인 게 있겠지만.. 내가 어릴 땐 잘못하면 사과를 했잖아 요즘은 엄마, 아빠 어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려워.

나도 내 자신이 너무 답답하고 속상해 이게 사춘기 같기도 하고 엄마한테 또 아빠한테 사과하는 것조차 너무 어려워..

근데 이런 나를 보고 매일 웃어주면서 상냥하게 대해주고 내면에서는 슬프면서 외면에서는 안 그런 척, 아닌 척 그런 엄마를 보면 내가 그동안 했던 것에 대해 죄책감이 드는 것 같아. 나는 엄마가 기분이 어땠고, 내가

안 했으면 하는 점을 충고해 주면 조금이나마 맘이 편해질 거 같아. 맨날 엄마를 보면 내가 너무 미안해져. 그렇다고 보기 싫다는 건 아니고..

우리 키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강아지 키우겠다고 난리치고 잘 안 돌봐주는 거 너무 미안해. 엄마 늦게 퇴근하는데 와서 우리 밥 차려주고 청소하고 엄마는 우리 때문에 밥도 못 챙겨 먹고, 유치원 일하느라 힘든데 쉬지도 못하고 그리고 주말은 엄마 쉬지도 못하고 과수원에서 뜨거운 날 일만하고 차마 우리 셋은 나가서 놀기만 하고 너무 내가 나뻐있나봐.. 엄마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속이 타들어 갔을 거야. 엄마는 하기 싫어도 괜찮은 척.. 나는 하기 싫으면 짜증만 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엄마 밤마다 피곤한데 우리 셋 시끄러워서 폭 자지도 못하고.. 이런 엄마를 보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대단하고 무엇보다 나의 엄마 아니 우리 가족의 엄마라는 게 제일 감사한 거 같아. 나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많이 도와주고 집안일도 우리 셋이 도울게!

무엇보다 난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젠 내면에 슬픔, 힘듦, 외면의 기쁨 말고! 내면의 기쁨 외면에 기쁨이 되길 도와줄게 우리 서로 숨기지 말고 표현하자! 내가 제일 전해주고 싶은 말은.. 엄마 난 엄마가 나의 엄마가 되어줘서 고맙고,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고 무엇보다 사랑하고♥ 감사해!! 엄마 정말 정말 사랑해욤!! 안녕!!

2020년 7월 23일 목요일
현지 올림♥

함현지 | 철원 동송초등학교 6학년 | 강원교육감상 수상작 ■

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언니에게

언니 안녕? 나 부해주야. 언니한테 말은 안했는데 나 언니한테 되게 고마운 거 많다. 맨날 나 싫다고 하면서 혼자자기 무섭다 하면 옆에 와서 자주고 학원가기 전에 배고프다고 하면 돈 없다면서 맛난 거 사주고 내가 잘못하면 엄마아빠한테 고자질하긴 하지만 나 혼나는 거 보면 중간에 슬쩍 내편 들어줘서 고마워. 엄마는 한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안좋냐고 말하잖아. 난 그래도 언니가 좋다! 언니는 맨날 나 싫다고 저리가라 하지만 나 좋아할 거라고 믿어. 원래 싸우면서 친해진다고 하잖아. 난 우리가 싸우고 화해할 때마다 어찌면 우리가 더 돈독해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 나 버스 처음 탈 때도 언니가 타는 방법은 아냐고 그러면서 나 데려다줬잖아. 엄마한테 들었는데 그날 언니 나 데려다주고 집 가는 버스 안와가지고 30분도 넘게 기다렸다면,,, 나라면 니 때문에 늦었다고 막 짜증낼 거 같은데 짜증내긴커녕 티도 안냈잖아. 난 그런 언니가 진짜 멋지다. 맨날 앉아서 거울만 보긴 해도 어려운거 있으면 나와서 도와주고 진짜 짱이다♡♡ 원래 부끄러워서 언니한테 말도 못 꺼

냈는데 이 대회 덕분에 언니한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이 편지를 보고 어떤 반응을 할지 정말 궁금하네. 이거 엄마아빠한테 보여주지 말고 언니만 봐야 돼 알겠지??? 이렇게 써보니까 우리 진짜 재밌는 일도 많았네. 앞으로도 잘지내자궁♡♡ 고맙고 사랑해~♡

2020.6.22 사랑하는 동생 혜주가

부혜주 | 제주 아라초등학교 4학년 | 제주교육감상 수상작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